

제429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3일(수)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여성가족부 소관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 | | |
|---------------------------------------|---|
| 1.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1 |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
|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 5 |
| 3.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 5 |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2024회 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고 잠시 정회 후에 11시부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여성가족부 소관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 계연도 결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은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4회 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2024회 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43건 등 총 48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 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각각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각 내역사업별로 예산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 및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으로 여성사전시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며 총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아직까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으로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내역사업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등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은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별도의 질의 순서와 관계없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박홍배 위원입니다.

지난 1일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유용 및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과 관련해서 신영숙 장관직무대행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취지가 여성가족부가 2020년 정의기억연대에 국고 3억 8000만 원을 집행했고 그중의 일부를 부정수령했다라는 취지 또 그에 대한 조치로 정대협은 2023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 이후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했으나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 또 정대협은 국고보조금 횡령, 정의기억연대는 후원금 횡령인데 후원금 횡령이 더 위중하므로 정의기억연대도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신영숙 장관직무대행께서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정대협의 보조금 보조사업자 배제 처분과 재단법인 정의기억연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2024년 7월 3일 여가부는 정대협에 대해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처분을 내

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후원금 횡령 7957만 원은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 등에 대한 개인 비리 횡령이었고 여가부 보조금 6520만 원 부정수령도 정대협 대표로서 운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소추일 뿐 정의기억연대하고는 무관했었지요.

물론 윤미향 전 의원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내기는 했습니다만 해당 사건에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횡령이나 부정수급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박홍배 위원 없었지요? 정의기억연대는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없었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렇습니다. 정대협은 1990년에 설립된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이었고 정의기억연대는 나중에 정의기억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2016년 6월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법적으로 출발, 조직 구성, 인적 구성, 물적 토대, 전혀 다른 조직이지요.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진행하는 박물관 학예 인력 지원사업에서 정의기억연대 부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여가부의 정대협에 대한 조치를 근거로 사업 대상에서 배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관련 부서에서 법률을 검토한 뒤에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조직이고 정의기억연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서 배제 주체를 취소했습니다.

장관직무대행, 정의기억연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하는 게 정당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대협과 정의연이 유관한 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인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모호한 부분입니다. 다만.....

○박홍배 위원 정의기억연대에서 횡령이 없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다만 정관 및 설립 취지에 정대협의 설립 목적과 활동 계승을 정의연이 명시하고 있고 또 정대협 대표인 윤미향이 이사장으로 18년도에 취임해서 실질적으로 동일 단체처럼 활동한 사실은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법률 검토하셔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선 서범수 위원님 잠시 말씀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박홍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대로 정의연은 정대협의 업적과 활동을 계승한다고 정관에 돼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대표나 이사진도 정대협 인사가 포함된 것도 사실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의연 자체가 정대협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간판같이 아니냐, 간판같이. 예를 들면 한국여성의전화가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횡령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못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해산하고 그 직원들이 전체로 다 가서 다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 국고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결국 저는 이것 간판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가부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양 기관이 인적·물적 조직 전체를 승계하는 경우에 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법률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위원장 이인선 직무대행께서는 법률 검토 잘하여 가지고 박홍배 위원, 서범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려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이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유념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업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결산까지 신영숙 장관직무대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사항은 성실하게 조치하셔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려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부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3.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여성가족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물음이자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지녀야 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민경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민경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3일

공직후보자 원민경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원민경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입니다.

먼저 국민을 대표해 늘 헌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바

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성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역량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약 25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에 계신 사회적 약자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대변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여러 국가기관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성평등, 인권 보호, 폭력 피해 예방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박탈될 수 없는 인권을 존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잘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온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2001년 출범한 이후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 등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지속 확대해 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과 위기청소년 보호망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과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 등 우리 사회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결을 지켜 왔습니다. 아울러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가족부가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성별인식 격차는 여전히 크며 성별 임금격차, 경력단절 현상 등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해 개선해야 될 과제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돌봄과 양육, 경제적 문제 등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다양해지고 청소년은 고립·온둔, 자살·자해 등 혼자서 감내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폭력예방 교육 강화와 신종 폭력 대응체계 마련 등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 범죄는 지속되고 있으며 성매매 등 인권침해적 행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하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의 조직 폐지 논란 속에서 부처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된 점 또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들의 강한 유대감과 협력의식, 공감력 그리고 책임감이 서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우리 미래세대가 안정감 속에서 성장·발전하는 성평등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이끄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성평등한 노동시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폭력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제폭력 등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성매매 등 인권침해적 행태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분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희생과 눈물을 역사적 기록으로 잘 보존하고 할머님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증언으로 계승되도록 기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내 모든 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여건에 관계없이 평범한 일상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찾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원활히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과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살펴 그에 알맞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가정과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섬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활동과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청문회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거듭나 국민과 늘 함께하고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처가 되도록 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성가족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현장과도 적극 소통하고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하고 열린 자세로 늘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잠시만요.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6분, 2차 질의는 5분, 3차 질의부터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국민의힘 간사 서울 서초 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두고 중인·참고인 제로 시대, 거대 여당의 노벨 시대가 왔다는 기사, 칼럼들이 쏟아집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사전에 검증해 부적격자를 걸러 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중인·참고인을 통해 업무능력, 도덕성, 정책철학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중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청문회 역사상 처음으로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중인·참고인 제로로 진행됐고 이후 이런 방식이 뉴노벨인 것처럼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고위공직자 22명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중인·참고인은 고작 15명에 불과합니다. 검증 기능을 상실한 맹탕 청문회, 이런 청문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우리 여가위에서도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오늘 원민경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후보자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보호를 책임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요청한 윤미향 전 의원과 이용수 인권운동가 등 핵심 증인·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여가부 보조금 횡령 법적 처벌, 사면 문제와 직결된 인물입니다. 주무 업무에 관한 중대사인데 후보자 검증과 왜 관련이 없겠습니까? 왜 마치 성역처럼 비껴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추밭 투자 논란이 있었던 김민석 총리후보부터 어제 음주, 교육부 최교진 후보자는 물론 오늘의 원민경 후보자 청문회까지 증인·참고인 제로의 청문회로 전락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형태는 국회 인사 검증의 본질을 비켜간 것입니다. 여당 역시 다수당으로서 청문회의 절차적 적정성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발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간사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증인 채택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채현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채현일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이인선 채현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채현일 위원 예, 맞습니다.

조은희 간사님께서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간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 절차에서 공통된 관행이고 약속입니다.

아까 조은희 간사께서 말씀했듯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자질을 검증하는 겁니다. 증인과 참고인도 부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자의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 사면, 보조금 횡령 그런 데 대해서 궁금하면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어떤 사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그러면 윤미향 전 의원이 있든 없든 또 이용수 증인 채택하시고 있든 없든 본인 입장을 각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종료된 증인 문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지연하거나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합당하게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선 증인에 관련해서 범위 문제는 양당 간의 협의와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잘 알겠고요. 여기까지만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잘하십시오.

원민경 후보자님, 사법시험에는 언제 합격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합격한 해는 1998년입니다.

○**서영교 위원** 199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인권, 가족법 전문변호사 이런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어디에서 활동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였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성 법조인으로 가정생활도,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면서 고마운 일은 바로 그겁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상담해 주고 한국 성폭력상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셨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보람도 있었지만 제가 오히려 그분들을 지원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한국의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매우 많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이 성폭력 당하고 말도 못 하고 숨고 그리고 자기 자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손을 벌릴 수 있는 곳이 한국성폭력상담소 그리고 한국여성의 전화, 그곳에서 일한 그 경력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자기 잘나가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 왔던 그 경력이 오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뒷받침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감옥도 다녀왔는데 지역에서 무료 도서대여실 그리고 어머님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일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어머님들이 공부를 배우러 오시는데 다음 날은 안 오십니다. 왜 안 오시는가 하면 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아빠…… 대신 맞았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머리채 끌린 채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왔던 그 세월, 그런 세월을 막아 주기 위해 변호사로 일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 경험으로 약하고 힘들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 주체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주는 예산으로, 아니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길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영교 위원** 아까 인사말씀을 들으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동 출생, 아기 출생, 엄마들의 양육과 일자리, 이 많은 일들을 하라고 여가부장관이 있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하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들 좋은 의견과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 저는 여가부가 주도가 되면 말씀하신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혼자서 못 합니다. 저희들과 그리고 여가부가 갖고 있는 조직과 이재명 정부의 그 조직을 모두 활용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꼭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필요한 것들은 이야기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화면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올해 출생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후보 시절에 인구미래위원회장을 맡았는데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간 소멸합니다. 소멸의 가장 골든타임에 원민경 후보자입니다.

6월 출생아 9.4% 역대 최대입니다. 출생아 수가 1000명이 늘었습니다, 작년 6월과 올 6월을 비교할 때 말입니다. 합계출산율도 늘었습니다. 소멸하는 대한민국, 세계 최저 출생률 고칠 방안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오늘 이 요청을 꼭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아이를 낳으면 국민 여러분 꼭 인식해 주십시오.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0세 때 매달 100만 원씩 부모급여를 줍니다. 아이를 낳으면 1세가 되면 매달 50만 원씩 부모급여를 줍니다. 아동수당은 8세까지 매달 1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이 산후도우미 비용까지 줍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캐나다 같은 경우엔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매달 60만 원을 줍니다.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제가 이번에 법을 대표발의했는데요. 당시에는 월 50만 원까지 매달 주는 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좀 줄였습니다. 약해졌어요, 제가. 만 18세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모 소득에 따라가 아니라 매달 월 20만 원씩 주는 법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과연 힘이 있을까?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50만 원씩은 매달 18세까지 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고 이와 관련해서 입법을 확실하게 추진할 자신감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저는 우리 정부가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가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정부 지원이 예전에 비해서 확대는 되었지만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출생률이 아직 더 많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의견 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청주시홍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약자들을 대변하셨고 또 시민단체나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평등이나 인권보호, 폭력피해 예방과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해 오시면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분들의 평가를 들어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제대로 임명됐다, 지명됐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특히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축소되고 위축돼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적임자가 지명돼서 앞으로 국민께서 많은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훌륭하게 역할을,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자 지명되고 인청 준비하면서 여가부를 가셨을 텐데 인청 준비하면서 느낀 소감 같은 것 간단하게 한번 얘기, 여가부를 직접 가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가서 봤던 여가부는 그동안 제가 밖에서 경험했던 여가부하고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난 3년간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속에 부처 축소 그리고 지난 쟈버리에서의 아픈 상황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위축되었고 최근의 여러 상황 가운데 여가부에서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굉장히 절박함이 느껴져서 저는 오히려 인청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가부에 대한 기대를 직원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여가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지금 현재 여가부에 제일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되고 폐지 위기에 있던 여가부 직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먼저 진작시키는 게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 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 평균 현원을 보면 평균이 2583명인데 여가부의 현원이 346명입니다. 숫자로 보듯이 정말로 말 그대로 힘없는 미니 부처에 불과한데 여기서 성폭력이라 할지 딥페이크 대처라 할지 아이돌봄이라 할지 가족·청소년 지원 등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 내에 전담 부서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대선공약으로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대통령님께서 9월 1일 양성평등주간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시고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소망, 우리 모두의 소망이 실현되는 첫걸음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내내 부처 폐지가 거론되는 여가부가 어떻게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계획할 수 있으며 계획했다 하더라도 폐지될 부처의 제안을 어느 정부 부처가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대 개편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의 핵심 부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시간이 짧으니까요, 제가 다음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돼서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 55개 중에 23개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를 포함해서 5개 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왜 서울에 남아 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 위원님,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에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평등 정책의 정부 협업, 부처 간 협업을 위해서라도 정부청사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청지역의 여성시민단체들지 관련된 법도 발의가 돼 있는데 여가부를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 지금 정부 관련 법률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이연희 위원** 법안이 개정이 되면 바로 신속하게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한 여러 가지 여가부의 산하기관들도 함께 세종과 충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위원**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 후보자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 들어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 예.

○**한지아 위원** 피해자 중심에 둔 용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해자 중심에 둔 용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저는 피해자 중심보다는 가해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체계에 없는 용어입니다. 형사소송법 등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는 이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시고 또 변론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해서 논란이 커졌었습니다. 저는 그때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었습니다. 민주당 줄곧 강조해 준 피해자 중심주의랑 정면 배치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분들의 생각을 추정하는 것은 제가 좀 어렵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 당시 그동안 쪽 여성과 피해자 보호에 진심을 갖고 하셨던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데 이러한 2차 가해로 오인이 될 수 있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그……

○한지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정치가 양당 체제에서 진영만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정당과 진영 논리만 앞세웁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 맞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당시 후보자님께서는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그런데 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단어가 괜찮았기 때문입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시에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침묵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당시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한지아 위원 지금 여성가족부후보자가 되셨지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침묵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PPT 봐 주세요.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어떤 회사 윤리규범의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거기에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맞습니까? 윤리규범에 피해자를 피해자로 안하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 맞습니까?

다음 PPT 봐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도 됩니까, 우리 사회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지아 위원 윤리규범에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여성가족부후보자로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주세요.

그런데 이게 어디 거냐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지아 위원 예, 맞습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2차 가해이기도 하지만 윤리규범에서 이를 삭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당연히 지금처럼 내셔야 되시고 후보자의 침묵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여성가족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해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제가 윤리심판원 심판위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윤리심판원에 제소되었던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한지아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따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조사하고 의결했던바, 그러니까 여러 사건에 대해서 했던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한지아 위원 진심을 다해서 조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단어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호소인 단어들이 본인이 민주당 윤리위원회로서 활동할 때 윤리규범에 담아 있었고,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전혀 아무 말씀 안 했다는 부분은 그것은 뼈아픈 과거로 인정해 주셔야 되시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는 사실은 이것은 안 되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서 민주당의 윤리규범에서 삭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내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내시겠습니까?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좀 조심스러운 점은, 제가 직접 피해자를 지원할 때도 여러 관계되는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지아 위원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한지아 위원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건이 계속 거론될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의 진심을 제가 잘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더 좋은 정책들과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조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지아 위원** 아닙니다. 윤리규범에 이런 단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꾸 정치에서 정파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중심 쪽으로 가면 이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라면 이것을 명확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원민경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임미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20년부터 21년까지 딱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위원을 하셨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임미애 위원** 이때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서약을 하는 게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임미애 위원** 내부에서 논의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비밀엄수를 하겠다라는 서약을 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임미애 위원** 만약에 위원이 아니었다면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입장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특정 정당의 윤리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된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또 윤리심판원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압력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심판위원인 사실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언론에 기사가 나기는 했지만요.

○**임미애 위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당에 관계하지 않았다면 정당 당원이 아닌 신분으로 윤리심판위원이 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당내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개인적인 입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낸다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심판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비밀엄수라는 서약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입장을 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특정한 정당의 윤리규범과 관련된 것을 공직자 신분에 있는 분이 따로이 입장을 낸다는 것도 저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후보자 지명 이후의 전반적인 여론 지형을 보니까 특히 여성계에서 환영의 목소

리가 굉장히 이어졌습니다. 25년간 법조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대리했고 ‘현장의 변호사’라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까지 얻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한 지명이었다, 반갑다, 여가부도 이제 제자리를 잡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도 여가부 직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가부 업무수행을 할 때요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정치적 역량과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가, 여가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처라기보다는 정책사업을 각 부처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장관께서 그것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하에서 여가부의 존폐론이 계속 거론되면서 실제로 여성인권과 가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현실적인 업무인데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가부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여가부의 구성원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달성해 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고 계속 개선 방안과 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귀 기울이자는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 내용이 오늘 인사청문회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저의 장관 인선 여부에 대한 청문회이기도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과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까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생률이 조금씩 증가되는 것조차도 미래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을 통해서 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들과 정책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조언을 들으면서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각오를 다져 보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넘어서는, 대통령실과 각 부처 장관들을 협의하고 설득해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그런 유능함 이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직원들하고 함께 협의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님 소중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님,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행정능력 또 예산,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에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장철민 위원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현장에서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 삶 전체로. 그래서 참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마무리를 장관직을 앞으로 수행하시면서 해내야 될 테니까 응원드리고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 민주당의 윤리규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님께서 조금 단호하게 말씀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이긴 하지만 국무위원이거든요. 국무위원은 명확하게 우리 헌법과 민주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 제 기억으로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정치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윤리규범이나 정강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소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에 가담하거나 우리의 헌정사를 파괴하거나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정당, 그런 정당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우리의 헌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정부 권한과 권능을 이용해서 사실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돼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졌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완전한 심판을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정당정치의 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헌법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셔야 돼요. 그런 무슨 용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장관이 어떤 정당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냥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저는 위헌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위헌적인 일을 국무위원이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유념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우리 장관후보자 사실 처음 뵙는데 이력을 봤더니 정말로 이렇게 까지 온 삶을 들여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에 헌신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어떠한 사례들 속에서 가장 크게 고통스러우셨고, 가장 크게 감동하셨고, 가장 크게 내 삶을 이 안에 계속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현장에서 겪었던 일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은 국무위원이나 저희 국회의원들은 하다 보면 정책 얘기하고 하면 대개 그 현장성을 약간 잊어버리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가위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현장에서 현 제도나 우리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보완책들을 생각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있으면 한 도막 조금 밝혀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후보자의 삶의 헌신이나 그 감수성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사실은 많은 변호사들이 또 변호사만이 아니라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주변에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만 홀로 이런 일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변호사이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직접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인생을 조금 더 보람과 더불어서 계속 저를 성찰하며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도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됐던, 우리 사회의 섬세한 지원이 뒹지 않고 어떤 낙인, 사회의 어떤 편견 가운데 목숨을 끊어야 됐던 위기의 청소년들 또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서 매 맞는 아내 중후군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판단에 그에 미치지 못해서 해외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한 건도 무죄판결 받지 못했던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남편 사망 살인 사건을 변호할 때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아직 여기까지인가.’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의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희망이 생겼습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고, 사실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다 기능으로 보통은 편성돼 있습니다. 저는 산자위도 같이 겸임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을 다루는 고용노동을 다루는 다 기능들로 되어 있는데, 기준까지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정부조직이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움도 그간은 있었습니다.

중복의 문제도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힘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될 길들을 밟혀 나가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재했다는 부분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명심하시면서 앞으로의 직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일단은 주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위원님.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다음 질의에 연결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어쨌든 양당의 정쟁에 관련된 얘기는 좀 삼가시고, 오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니까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정춘생 위원 무엇보다도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다소 논쟁적일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시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 발언이 굉장히 소신 있게 보였고,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책임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 이제 곧 정부조직 개정안이 제출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성가족부가 확대 개편된다고 하는데 실제 확대 개편되는 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확대 개편안이 마련은 되어 있지만 최종 결론 전으로,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해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국무회의에서 내림에 있어서 큰 시급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식물부처로 전락했던 여성가족부의 원상복귀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름만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고요.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저는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성평등 임금차별 이것이 저는 차별의 집합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임금공시제 관련된 입법, 제도 이것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워낙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성평등 관련된 임금차별 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여성가족부로 이관을 해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격차를 매해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법 보완하고 시정할 것인가라는 업무를 여성가족부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은 확대 개편이 아니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조직의 확대 개편,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우리 당이, 조국혁신당에서 당론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 관련해서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을 발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이 중에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성별 임금격차 개선 관련해서는 여가부로 이관을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부처의 명칭에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확인한바 여성가족부의 상당히 많은 업무가 청소년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처 명에서 ‘청소년’이 빠짐으로 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업무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 주는 면에서 부처명 변경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부처명에 청소년을 두는 것은 저는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럴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PPT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것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편집한 건데요. 그중의 일부만 했고, 많은 나라들에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너무 불행해요. 입시 위주의 경쟁 그리고 서로 정글 같은 경쟁 속에서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여성가족부가 저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정부 때 여성부를 창설하면서 여성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가족’이라는 명칭을 호명하면서 가족 정책이 굉장히 전진했습니다. 물론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됐지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명박 정부 초기 때 하기는 했지만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 다 준비를 했던 겁니다. 가족친화 환경 조성법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도 굉장히 많이 진전했고요. 아이돌보미 정책도 다 그때 여성가족부가 도입되면서 한 겁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요. 2015년도부터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을 본궤도에 올리려면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여성·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이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 필요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위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한 관심으로……

○정춘생 위원 저도 공동발의했습니다. 김한규 의원도 하셨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래서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다만 지금 정부조직법 안에 안 담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요. 제가 그래도 행안위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테니까 후보자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요.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후보자에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것 기억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원민경, 군인권보호위원 사퇴하라’, 후보자께서 2023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소위원회는 군인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23년 8월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건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때도 후보자가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때 긴급구제 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현재는 긴급성 요건을 결여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는 기각할 것 이런 식으로 났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님.

○서범수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그 배경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간단하게, 나왔던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직전에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가벼운, 사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하면서 박정훈 대령의 대리인께서……

○서범수 위원 후보자님,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감사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긴급구제 결정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막중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기각이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몇 분이 계셨습니까, 그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소위원회 위원장이셨고 한석훈 위원과 저, 3명의 위원이 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그다음에 세 사람이 다……

후보자께서도 기각 의견을 내셨지요? 그것은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긴급성 요건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권센터나 이런 데서 ‘김용원·원민경·한석훈 인권 위원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를 냈고 또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에 가세했다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임위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주세요라는 식으로 많이 퍼뜨려졌습니다.

그때 전화 몇 번 받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전원위원회 때 유족분들이 나왔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때는 긴급구제 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건이지요. 2024년 1월에 고 채 상병 제삼자 진정 사건 수사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인권침해 여부를 다룰 때 이때는 후보자께서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긴급구제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구제에 대해서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서범수 위원 아니, 잠시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좀 대답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진정 건에 대해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서범수 위원 인용 의견은 냈지만 결국은 결정문이 작성이 안 돼서 공식적으로는 기권으로 돼 있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닙니다. 인용 의견서를 제출했고 제가 냈던 인용 의견이 결정문에 첨부되어서 나중에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서범수 위원 제가 어제 받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지요. 다시 확인하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긴급구제에 대한 기각 건으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출국금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잠깐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 조금 듣고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으로는 기권으로 돼 있습니다. 기권이 되든지 인용이 되든지 간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론을 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긴급구제 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셨고,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셨다 칩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그 결정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처음에는 항의서를 낼 정도로 그렇게 반발을 하더니 갑자기 기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에서 무슨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마찬가지로 후보자께서도 그때는 기각을 내셨는데 왜 그 이후의 문제……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이 건 자체가. 이때는 왜 인용 결정을 하셨는지?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것도 특검의 시작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원 후보자께서 입장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서범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까 말씀드렸던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해서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범수 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다음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들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님, 조금 기다리세요. 질문받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병 특검의 경우에 VIP 격노설 플러스 이 긴급구제 건이 왜 기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 긴급구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세 사람 중의 한 분입니다, 원 후보자께서. 거기에 같이 의견을, 동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저는 그때.....

○서범수 위원 형식적으로, 외견상으로 보면 분명히 긴급구제 건에 대해서 위원님도 그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원 후보자께서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처럼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인권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고 군인권보호관이 그렇게 입장이 돌변할 줄 몰랐고 더더군다나 이종섭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지만 그 당시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군인권보호위원회 내내 군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다른 것 차치하고 외부적인 환경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긴급성 요건에 대한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리 그렇지만 그전에 징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서 원 후보자께서는 거기의 기각 결정에 동참을 하면 안 됐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제가 9월 내내.....

○서범수 위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삶을 바쳤다면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정말 그 부분은 제가 박정훈 대령님과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9월 추석 연휴 내내 인권위원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사기록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절대 기각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님,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하시고요.

서범수 위원님의 요지는 이해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이해합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선 지금 오전 1차 질의 다 못 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1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님의 생각과 입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 조금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충분히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소통이 되는데 위원님들은 질의가 끝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후보자는 계속 마이크가 있으니까, 진행하는 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될 수 있으면 다 듣고……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제가 충분히 시간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먼저 원민경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잘 지나서 1년 8개월 동안 비어 있던 여가부의 수장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가 오랫동안 장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존감도 낮아져 있으니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 활동하셨다고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의 하나가 박원순 시장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민주당이 오전에 이야기했던 피해호소인과 관련한 것은 2020년 7월 17일 당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공식적인 칭호를 피해자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재조정을 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윤리심판위원회로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민주당이 성폭력 징계시효를 완전히 폐지했던 것, 2020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감찰단에 강제집행력 부여 예정을 해서 성폭력 사건에 윤리감찰단이 구속력이 있는 집행 권한을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2020년 8월에는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면서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에서, 앞으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나누면서 여야 상관없이 중립적 위치에서 정치적 중립을 표하면서 국무위원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셨다 할지라도 정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각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국무위원이 참견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채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가 갑자기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하고 나서 주변도 굉장히 의아하다 생각할 정도로 태도를 바꾸고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조사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채 해병 특검에서 너무도 당연한 거고 채 해병 특검 안에도 넣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민경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의 본질과 진실을 왜곡하는 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인권위에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이 제출되었고 군인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왜 기각 처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기각 처리 때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고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기 전날 박정훈 대령님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해서 견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승인 없이 언론사에 인터뷰한 건에 대하여 국방부가 군기가 매우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라는 낮은 결정이 내려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박정훈 대령님 대리인께서 언론을 통해서 하신 것을 제가 확인하고 이후에 긴급구제 심의 진행 중에 긴급성의 요건이 적겠다, 그리고 당장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약간의 확신 속에서 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진숙 위원 좋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지금은, 저의 잘못된 결정으로 제가 굉장히 처절한 반성 이후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진숙 위원 좋습니다.

군인권위원회가 24년 1월 30일에 진정사건을 받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전진숙 위원 그럴 때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한 분만 지금 인용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제2항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기각 의견을, 한 사람이 인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통상적으로는 재상정해서 다시 심의하거나 아니면 전원위로 회부하는 것이 그동안의 25년간 인권위가 해 왔던 결정이었고 해석이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보호관은 전원위에 올리지 않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올리지 않았고 저는 그때 이 의결은 위법하다고, 무효이니 이 의결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진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채 일병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는 충분한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지금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긴급구제 기각 결정이나온 바로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군인권보호국 직원에게 연락을 하고 군인권보호관을 만나서 군인권보호위를 긴급하게 다시 소집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우리가 인용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용원 위원께서는 저에게 ‘사무실로 가서 기다려라. 연락하겠다’. 그러나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전원위에서 왜 그때 긴급구제를 위한 군인권보호위 소집하지 않았냐고 확인하니 김용원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원민경 위원이 본인의 상전이냐’고, ‘제가 위원이 소집해 달라고 하면 소집해야 되느냐’고 하셔서 정말 제가 할 말을 잃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 중이니 충분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 질의 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홍배 위원 후보자님, 장관후보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감사드립니다.

○박홍배 위원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니께서 증언을 하시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4년간 일본의 공식 사과와 또 배상 받기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 또 많은 할머니들께서 오랜 기간 투쟁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 여러 시민단체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셨는데 기부금 납부내역에 보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돋는 활동 하는 단체에 내신 기부금 내역도 있으시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박홍배 위원 혹시 관련해서 활동도 직접 좀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많은 활동을 하진 못했습니다마는 과거 ‘낮은 목소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접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여러 학술 연구와 포럼 등에 참여해서 저의 인식을 높여 왔습니다.

○박홍배 위원 혹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수요집회에 가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습니다.

○박홍배 위원 혹시 마지막 가신 게 언제 정도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작년 여름 정도였습니다.

○박홍배 위원 지난해 여름이셨습니까. 저는 올해 3월 8일, 3·8 여성의 날 그리고 지난 광복절 전에 있었던 기립일에 갔었는데요. 대사관 앞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요집회에 가셨을 때 혹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수요집회를 방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과거 인권위원회에서 수요집회 방해에 대한 진정 건이 인권위에서 진행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도 확인하고자 수요집회에 가서 상황을 제가 지켜본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상황은 제가 미처 못 가봤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 조금 낫기는 하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인근에서 집회를 하셨었는데 그 자리를 극우세력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 밀려난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두 분 정도가 마이크를 잡고 집회를 하려 나온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서 내뱉는 혐오와 조롱의 수준이 정말로 지나쳤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차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조차 낮 뜨거울 정도의 말들을 하면서 혐오 그리고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러한 역사왜곡행위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전혀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관련해서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저도 사실 여성가족위에 올지 모르고 제가 8월 4일에 관련 법안을 오랜 고민 끝에 발의를 했는데요. 장관이 되시면 이 법안 통과에도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국회와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적극 소통하고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전국에는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과 같은 소녀상이 155개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여가위에서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의 보존·관리·훼손 문제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 관련해서 여가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실태조사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청문 과정에서 확인하니 올해 8월부터 훼손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에 들어가서 정기점검이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박홍배 위원 훼손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던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훼손 상태에 대한 보고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추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아마 올해 8월에 했던 소녀상에 대한 상태 점검이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최초의 소녀상 상태 점검이었을 것 같습니다. 훼손 여부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박홍배 위원 기억 그리고 양심의 상징물과 같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훼손·조롱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상록수역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술 취한 남성에 의해서 비닐이 씌워지는 봉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복절 밤이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부산에서 ‘철거’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대형봉투를 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튜버들에 의한 모욕 사건들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조니 소말리 사건, 온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이스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유튜버는 일본이 위안부를 통해 좋은 유전자를 줬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의 지적 너무 타당하고 이제는 저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할머님들이 어렵게 행하신 증언이, 저희 현재와 미래세대에 대한 기여가 잊혀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외에도 이 정신이 알려지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홍배 위원 위원장님, 새로 보임하면 1분 더 주고 이런 것 없습니까?

○위원장 이인선 다음 질문이 5분, 3분 쯤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또 기다리시니까요.

○박홍배 위원 환노위는 주시는데……

○위원장 이인선 죄송합니다.

○서명옥 위원 야당이 동의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그러면 꼭 하셔야 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박홍배 위원 마무리드리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역사에 대한 왜곡과 모욕이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일본군은 비용을 지불한 고객이었다’, 바로 후보자께서 수요집회에서 들으셨던 극우세력들의 망언인데요. 이런 망언들이 담긴 책자가 벼젓이 출간되어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무려 15곳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여성가족부가 알고 있을 텐데 교육부와 어떤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책들을 썼느냐? 바로 수요집회에서 만나셨던, 일본대사관 앞 수요일마다 소녀상 모욕집회를 주도하는 인물이 쓴 책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도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원민경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서명옥 위원** 저는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오늘 오전 동료 위원께서 민주당의 윤리규범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요. 동료 위원께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에 원후보님께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그런데 그전에 원 후보님께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용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윤리규범에 대해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삭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인식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중에 제 발언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수정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여가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규범 제14조에 있는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의향이 없습니다.

○**서명옥 위원** 없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그 부분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결정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드립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또다시 피해호소인이라는 것이 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후에 더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진숙 위원님께서 민주당에서 이후에 세운 대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이 피해호소인 단어는요 민주당에 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민주당에 있는 당직자는 대한민국의 여성·남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 위에 있습

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의 본연의 의무는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 특히 여성 인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 향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당에 있다는 그 윤리규범을 가지고 소극적인 태도, 저는 정말 이 시대의 여가부장관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가부에 대한 여러 가지 폐지론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회에서 여러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직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단호한 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고, 특히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실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여가부 폐지론까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송 대한민국의 여성·남성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힘 있는 여가부를 주장하시는 힘 있는 여가부장관님의 발언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힘은 오직 힘없는 여성과 약자를 위해서 쓰여져야지 권력을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 정당의 윤리규범에 있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삭제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서명옥 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소신이 항상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여가부 후보님의 살아오신 이력을 보면 정말 여러 여성단체하고 많이 가깝게 지내고 어떻게 보면 경도되고 편향되었다 할 정도로 여성 인권을 주장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서 여성이 피해를 받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단호해야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저는 여성 가족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느 국무위원하고 저는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왜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여론이 안 좋은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만의 탓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윤리규범에 대해서 피해호소인 단어 삭제 요청하실 겁니까, 안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단순히 민주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답을 드리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서명옥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정당이 국가 위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당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당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님의 말씀이.....

○서명옥 위원 분명히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가 모든 여성 남성의 젠더 갈등과 그리고 여성 피해자, 특히 이를 위해서 인권 보호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전 부처를 갖다가 컨트롤타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데 아주 소소한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삭제 부분에서도 이렇게 벌써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정말 힘 있는 부처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저는 후보님한테 기대 많이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여가부장관이 되면……

○**서명옥 위원** 아니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정당의 규범에 대한 입장을……

○**서명옥 위원** 아니, 장관으로 임명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꼬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서명옥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우리 모든 전국의 여성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다음에 다시 이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 질문 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는 그것은 정당에 있는 그 피해호소인 부분이 정당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니까 정당 쪽에 계신 분한테, 그게 팔호 해서 들어간 연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질의할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김남희 위원** 후보자는 그동안 20년 넘게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위하여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해 오셨고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역할도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 가정과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섬세하게 살피겠다, 대한민국 내 모든 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밝히셨고요. 앞으로 해야 하실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정책적 내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에 서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돼서 후보자님,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김남희 위원** 그러면 정당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시지 피해호소인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다음은 가족센터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가족센터를 이용해서 한국어 학습, 진로 설계, 언어 발달 등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 **김남희 위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돋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협행법상 가족센터 이용 대상이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다문화가족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이주노동자 사이의 자녀나 중도에 입국한 가족처럼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가족센터 지원을 받고 싶어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한국 사회에서 점차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여가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족센터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다면 이용자 현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지금 협행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도 몰래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가족센터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가족센터 지원 대상을 이주배경아동·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족센터 이용 대상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적극 찬성하고 지금 만약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앞으로 여러 법적 공백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이나 아니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아동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가정밖청소년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 **김남희 위원**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떨어지게 된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여가부에서는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서 보호하고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퇴소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쉼터퇴소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청소년은 배경이나 자립지원 성격이 비슷하지만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져 있고 근거법도 달라서 지원에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자립정착금의 유무입니다.

쉼터퇴소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보증금 개념의 자립정착금을 자립준비청년은 1000만~20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다

는 이유로 쉼터퇴소청소년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거비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지원에 차등이 발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도 후보자 지명되기 전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이 부분은 정부에 정책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가 잘 참고해서 이후에 그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제 생각에는 자립지원청년은 아동복지법, 쉼터퇴소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지원책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자립지원의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공평한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적극 공감하고 입법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가정밖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채현일 위원 성매매 집결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민변 여성위원장 등 여성 인권과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고 ‘성매매 여성의 변호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성매매 집결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지금 12개 정도……

○채현일 위원 정확합니다. 서울에는 영등포하고 미아리,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의 길이 아직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잔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현일 위원 치안, 도시 미관 또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악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가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가부 지금 소관하는 법률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26개입니다. 성매매피해자보

호법이 아마 성매매 집결지 관련 법안일 거고요.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매매 방지, 재활·자립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요. 여가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데, 목적과 취지는 다르지만 이름이 비슷한 법이 또 법무부에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그것은 처벌입니다, 성매매 당사자.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성매매 종사자가 한쪽에서는 처벌 대상이고 한쪽에서는 지원 대상, 보호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가부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를 보시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정집행 권한이 있다지만 성 종사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의 극단적인 저항으로 적극적 단속이 어렵다고 지자체의 협조를 요구하면서 그쪽에 떠넘깁니다. 뭐 소방법, 국세청 여러 차원에서 하지만 일회성 대응으로 끝납니다. 모두가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여가부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가부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있는 규정, 특히 여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매매 의심 업소에 출입·지도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끝으로 여가부가 성매매 현장점검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지자체·경찰·시민단체 합동점검으로 변경이 돼서 여가부가 단독으로 권한이 없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후보가 되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여가부가 그동안 이 부분에 개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현장점검 등 이런 성매매 차단을 위한 적극적 역할 행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강조했습니다. 여가부가 가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또 피스 메이커,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 경찰,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아마 여가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피해호소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용어 자체가 후보자님, 그 불미스러운 사건 이전부터 여성운동이나 인권운동 차원에서도 나왔던 용어지요, 이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마 그 사실관계 확인이 전에 썼던 좀 주관적인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민주당, 우리 당의 윤리규범에 아마 그렇게 규정이 된 이유가 피해 사실이 수사나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피해를 호소한 즉시 피해자로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를 폭넓게, 그래서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 아마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피해 자라는 용어는 형사절차에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소명된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그 당시 중앙일보에서도 해당 규정에 대해서 피해를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사람도 피해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해야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이 피해자를 불신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무위원이 되시고 나서 특정 정당의 윤리규범에 대해서 찬반 입장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적절치 않지요. 그래서 그런 것의 제도를 행정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언급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지금 피해호소인에 대해서 관점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잘 들어 보시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이달희 위원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1조 80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1조 8000억쯤 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성인지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성인지 예산……

○이달희 위원 성인지예산은 24년도 결산에 한 24조 원가량 됩니다. 여성가족부 예산과 사업은 작지만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성인지예산의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 여가부장관의 역할은 작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가부장관과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민간단체의 개수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장관이 되시면 민간단체, 시민단체와 보조금 사업을 확대하시겠습니까, 유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에서는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윤미향 전 의원의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자세하는 모르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총 7개 사업에 걸쳐 6520만 원 횡령을 비롯해서 위안부 할머니 장례금 불법모금 등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것도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 당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었을 때 재판이 지연되어 윤미향 전 의원은 결국 국민의 헬세인 세비를 전부 챙겨 가며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웠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상황에 대해서 눈 뜨고 코 베인 심정으로 국민들은 횡당한 형태들을 지켜봐야 했다, 국회에 입성해서 특혜를 누리며 횡령 비리가 드러나도 언론의 마녀사냥이라며 버틴 생계형 좌파의 교본이다라는 질책으로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에 편승해서 약자 팔이를 하는 것이 시민단체, 특히 열심히 일하는 좌파 시민단체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여성가족부가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못 했기 때문에 빌미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이달희 위원 국민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뒤돌아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우리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또다시 생계형 좌파들의 일자리다, 약자 돌봄을 빌미로 권력에 편성해서 일자리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보조금……

○이달희 위원 시민단체랑 민간단체랑 정책 협의를, 보조금을 잘 쓰시겠다면서요.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무회의에서 있다면 반대하실 용기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하시는 거는 무조건 따라가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헌법상 권한에 대해서 국무위원인 저에게 권한이……

○이달희 위원 국무회의는 왜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광복절이 우리 국민에게 가지는 의미를 잘 아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광복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미향 전 의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질의서에 보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2024년 2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합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당대표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윤미향 전 의원은 구속 상태도 아닌데 굳이 왜 광복절에 사면해서 국민들……

위원장님, 저도 박홍배 위원처럼 1분만……

○위원장 이인선 예.

○김한규 위원 동의합니다.

○이달희 위원 누나니까 저도 조금……

(웃음소리)

왜 하필 광복절에 이런 위안부 할머니 문제로, 후보께서도 이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유죄판결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대통령께 용기 있는 얘기를 해야 국무위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 다물고 계실 겁니까?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에 의해 하면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헌법상 권한일 때는 저는 행사할 것입니다. 과거, 작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게 헌법상 권리가 부여된다면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이 납득 가십니까? 광복절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 납득 가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구속 단계도 아닌데 광복절 날 꼭 사면한 것이 납득 가시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주희 위원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이주희 위원 후보자님, 특히 이번 주 양성평등주간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이주희 위원 저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덕목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여성과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서 싸워 오신 우리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되어 오늘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의 역할이 정말 막중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조직이 폐지될 뻔한 위기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오랜 장관의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특히 젠더폭력 대응, 성평등 확대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개편 준비라는 중책까지 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님께서 변호사로서 정말 수십 년간 약자를 위해서, 사회 공익을 위해서 폭넓은 활동을 해 오신 그 경험이 여성가족부장관을 수행하시기에 매우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 후보자님께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을 위해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으신지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여성가족부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평등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가부가 예산은 적지만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많은 정부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부에서 봤던 여가부와 3년간 폐지가 거론되고 있던 여가부는 타 부처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여가부에 대한 기대를 여가부 공무원들께서 확인하고 새롭게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겉으로 작아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더 본질적인 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가부가 하는 일이 바로 겉으로는 작아 보이나 더 본질적이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그 확대 개편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조차도 거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개 사례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화면을 보시면 최근 진주시에서 진주여성민우회의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행사의 지원금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혹시 알고 계실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저도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주희 위원 결국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사건이 바로 행정이 아주 비상식적인 민원에만 화답하면서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혐오 세력에 동조하는 꼴을, 그런 결정을 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진주시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불참을 했고 많은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 사회에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존중하고 또 보호하는 저희 부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성평등 확대 정책이라는 것이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성평등 단어 사용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후보자님, 2021년이었지요.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적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활동했습니다.

○이주희 위원 지금 PPT 보시면 당시에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가 7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결과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때 함께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이주희 위원 이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김상희 당시 국회부의장님과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1명의 여야 선배 의원님들께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성평등이라는 표현에 동성애 옹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인데요. 국회조차도 여전히 낡은 젠더 인식에 갇혀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성평등 기준부터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이 취지의 결의안이 성평등 단어 하나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결의안의 초안이 되는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함께 만든 후보자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의 안타까움과 저도 결을 같이합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많은 여야 협력 의원님들과 전임 의원님들께서 다오셔서 함께 성평등 국회를 위한 자문을 주셨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저 보고서였습니다.

그때 한참 저는 공군 이예람 중사님 사건 관련해서 민관군 합동위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끝까지 챙기지는 못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게 결국 성평등 단어에 대한 오해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많이 아쉽고 여가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오해 없이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앞으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이후에도 이 단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은희 위원 후보자님, 제가 여쭤볼 테니까 좀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조은희 위원 과거 이정옥 장관 시절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서 사실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때 여가부 폐지론이 많이 일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 이런 여가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적절합니까, 아니면 부적절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과거에 이정옥 장관님이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후보자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여성에게 상처를 줍니다. 지금 보통 피해호소인은요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부르는 말이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래 의도는 법적 중립성을 강조한다는 거지만 실제로 사회적 효과는 피해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깨아 내린 표현이기 때문에 피해호소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있는 건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어떨 때는 피해호소인이 깨아 내리는 용어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다가 또 다른 시점에는 중립적 의미로 하시다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겠다는 분이 그 개념 하나도 제대로 정리 못 하시고 그러시면 상당히 많은 여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던 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서면질의로 물었을 때 왜 양성평등이나 여성가족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성평등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를, 영어를 그냥 번역한 거였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주희 위원님과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한다고 하면서 양성평등가족부라고 하거나 또 여성가족부로 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라고 하시는 이유가 지금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가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희가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오해가 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오해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어떤 기자회견이 성평등이 뭘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조은희 위원 본래 의미는 뭔데, 다른 의미는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제가 답변에 단순히 저희가 영어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현상에 깔려 있는 구조적 측면에 중심을 두자는 그런 의미의 성평등……

○조은희 위원 그런데 성차별 현상의 구조적인 게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많습니다.

○조은희 위원 남성·여성 외의 다른 성이 있는데 차별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실질적인 평등, 과거에는 형식적 평등에 그쳤다면 저희가 양성평등이라고 했을 때……

○조은희 위원 왜 말을 자꾸 돌려서 하십니까? 즉답을 하십시오.

지금 헌법에 양성이 있다고 그랬고요,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성평등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다른 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인정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하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

○조은희 위원 뭘 종이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까 이주희 위원과 질의 답변하면서 전문가시라면서요?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서 모두발언 내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시겠다 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실질적……

더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양성, 여성·남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전제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

○조은희 위원 저 봐, 또 지금 답변을……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저희가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오해가 뭔데요? 제가 하는 오해가 뭔데요?

○채현일 위원 말꼬리 잡지 마세요.

○조은희 위원 아니, 말꼬리가 아니고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물을게요.

공직선거법에 남성·여성 비례대표를 절반하는 게 있는데 트랜스젠더, 남성이 성전환을 해서 여성이 되면 공직 비례대표의 여성 비례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법적인 성별 전환이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를 질문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조은희 위원 그렇다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것은 저희가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한번 사법부의 판단도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023년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부 경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차지했는데, 지금 참고로 미국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했는데, 앞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현일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조은희 위원 대신 답변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달희 위원 대신 답변하지 마세요.

○조은희 위원 답변하십시오!

(장내 소란)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님, 지금 현재 헌법으로는 양성입니다. 그렇지요? 1번, 2번이 있

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등록상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좀 광의적으로 말을 하셨다가 또 좁게 가셨다가 막 이러니까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트랜스젠더라는 사람이 경기에 가서상을 받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영역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시지 말고.

○위원장 이인선 그래서 아마 지금 후보자께서 이주희 위원이 물었던 질문하고 조은희 위원이 물은 질문하고 지금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겁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서범수 위원 인지가 안 된 게 아니고 일부러 안 하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아니, 답변을 요구하세요. 답변을 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다음 질의 또 있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인선 다음 질의는 이어 가는데……

후보자님, 지금……

○조은희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는 끝날 때 다 답변하시게 하시고 왜 이 질문은 답변을 안 하게 해 주십니까?

○채현일 위원 제3의 성이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강요하시니까 그러지요.

○조은희 위원 답변 들어야지요.

○위원장 이인선 강요는 아닌데요. 후보자님, 조은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요.

○전진숙 위원 아니, 법적으로 알아보고 하겠다고 하잖아요.

○서범수 위원 있다, 없다?

○이주희 위원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은희 위원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 트랜스젠더가 금메달을 따는, 하는 데 동의하시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주희 위원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생물학적 성을 자꾸 강요하십니까.

○서범수 위원 가만히 계세요.

○서명옥 위원 후보한테 물어본 겁니다.

○김한규 위원 다른 분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 분 위원님만 얘기하시고.

○위원장 이인선 두 분만 이야기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나중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 질문에 추가로 해 주시고요.

○서영교 위원 아이고, 정책 능력을 보는데 무슨 성을 질문하고 그래.

○서범수 위원 능력만 봐요?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가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성평등가족부 얘기 이주희 위원님이랑 한참을…… 그때 안 계셨잖아요?
6분 내내 그 얘기 했어요.

○**이주희 위원**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들, 그런 논란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다음에 김한규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장관후보자가 아니고 저한테 질문하시지는 않았는데,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경기에서 출전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장관후보자가, 특히 여가부장관후보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이 부분이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우리 사회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고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개인적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가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혜훈 전 의원님이 인터뷰하신 거 봤더니 본인이 2004년 초선일 때는 ‘요정’ 그러니까 여성 접대부가 있는 자리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여성 의원이라고 발언을 하지 말라고 남성 의원들이 말리곤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21년이 지난 지금에는 많이 바뀌었고 저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과정을 이미 수십 년 전에 거쳤고 또 많은 나라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논의 자체를 그냥 무작정 피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 개인 견해보다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도 여가부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처음 봤고.

저희 여당 여가위원회들이 사전에 회의를 할 때 한번 오셔서 인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전달을 했더니 후보자께서 여야 중 일부 정당에만 가서 먼저 인사드리고 입장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거절하셨어요.

제가 처음 듣고는 ‘아니, 여당인데, 우리 여당인데 서운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생각해 봤더니 공직후보자로서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인상 깊게 봤고요.

그 대신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여당하고 당정협의회는 좀 하셔서, 여성가족부가 정말 힘 있는 부처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돋겠으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희들이 요청하면 오셔 가지고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김한규 위원** 후보자님, 이게 되게 어려운 자리잖아요. 저도 안 앉아 봐서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난관을 겪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일이 가장 하고 싶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공적 경험에 일천한 저에 대한 장관후보자 지명,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 사회에 대한 소망과 여성가족부 정상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더 훌륭한 후보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과오와 부족함에 대한 성찰을 물리치고 이 자리까지 제가 서게 되었지요.

얼마 전 10대 중반에 제가 쓴 일기를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동물이기에 여러 가지 악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정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

20일가량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10대에 제가 살아갈 힘을 얻었던 우리 사회의 선과 정의, 사랑을 여성가족부 정책을 통해 펼쳐 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가졌습니다. 저는 선과 정의, 진심이 깃든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김한규 위원**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한 부처의 장관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셔야 되고, 사실 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장관후보자님 경력들을 보면 여성인권, 여성폭력 분야에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저도 여러 분들이 좋은 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여성, 가족, 청소년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예산만 보면 가족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인력을 보면 여성이 많긴 합니다만 가족과 청소년 분야도 만만찮게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나 전문성이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장관이 되시면 가족과 청소년 분야 중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업무가 있으신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더 하겠는데, 답변만 듣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여가부가 그동안 해왔던 가족과 청소년 분야에 대한 업무를 더 살펴볼 기회를 가졌고, 특히 저희가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그동안 저희가 정책이 있었지만 더 직접적으로 가닿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적극 강화해서 청소년기의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이 우리 사회 미래를 담보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는 교육부의 최교진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여중생이 1등을 하다가 12등을 하게 돼서 울고 있는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 그게 어제 공분을 많이 산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인권을 하시니까, 그 상황에서 교사가 1등에서 2등으로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애 뺨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

나 가르치는 입장에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제 내용을 좀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그래서 어쨌든 마침 당사자가 여학생이고 폭력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아마 못 보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아침에도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게 결국은 동성애하고 자꾸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성명서도 오전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단체에요, 기독교 단체에서요.

그런데 아무튼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헌법적인 가치와 공론화를 쭉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공론화를 거칠 때 제가 보면, 물론 차별금지법이든 동성애든 찬성·반대 이렇게 해서 공론화를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한쪽을 너무 혐오로 자꾸 몰다 보니까 한쪽에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공론화는 반드시 50 대 50으로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고 듣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방향을 잡아 가야 되는데 그런 공론화 과정이 만약에 앞으로 있다면 반드시 50 대 50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비율에 대한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회를 통한 다양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이 될 것으로 믿고 그 부분에 여가부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그래서 자꾸 기울어지기 때문에 공론화라는 정확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서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2차 질의를 들어가겠는데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잠깐 2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님 답변하러 열심히 오셨는데, 20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지요?

○서영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1차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해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과거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하는 한 가

지 사건 같은 것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맞는아내증후군으로……

○서영교 위원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맞는아내증후군을 겪으면서 심신 상실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저희가 여성의전화와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는 처음에 본인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의 도움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오히려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설득하고 가정폭력 그 피해자를 지원한 끝에 며느리님의 가정폭력 피해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시어머님이 재판에 출석하셔서 증언하시면서 ‘우리 며느리 불쌍하다. 제발 살려 달라’ 호소하신 이후 저희가 그 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출소하셔서 이후에, 교도소에 계신 동안에도 저와 지속적인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지금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해서 잘 지내고 계신 것이 제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서영교 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

제가 태완이법을 만들었는데 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해 죽어 갑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지 못하는데 그 범인을 잡게 우리가 도와주다가 끝내는 범인을 못 잡고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살인범은 끝까지 쫓는다’라고 했는데 태완이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그 태완이한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범인 잡아 달라고 15년 동안 길거리를 해매다가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상황, 어렵고 힘든 사람은 구해 주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바로잡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아픈 곳도 잘하셨고요. 앞으로 더욱 잘하길 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여가부장관은 출겁고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피박스, 해피박스라고 들어 봤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에 해피박스가 있었어요. 서울시민 95%가 해피박스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해피박스가 없어졌어요. 저 해피박스는 아기를 낳으면 ‘출생 축하용품 고르세요’ 그래서 턱탁탁 고르면 그것이 담겨서 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영교 위원 제 딸 아이가 취업을 할 때요 예쁘게 옷을 차려입었더라고요, 내가 안 사줬는데. 서울시에서 취업할 때 옷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정치고 이게 지자체장이고 또 이게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수렴해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해피박스도 만들고,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2015년에 0.5, 그러니까 약 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만 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8배 늘었습니다, 8배.

아빠의 육아휴직, 아빠의 육아휴직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바로 여가위에서 법으로 만든 겁니다. 여가부와 여가위가, 국회가 법으로 만든 겁니다, 아빠도 육아휴직할 수 있게.

그런데 말이지요 아빠만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육아휴직이라고 있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의 육아휴직.

아이 누가 키워 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형가리 보세요. 조부모 육아휴직 도입, 월 약 123만 원. 조부모 육아휴직. 우리는 언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희생을 강요해야 될까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 주신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영교 위원 제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조부모 육아휴직 도입, 행복한 출생, 행복한 육아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 그래서 출생률 꼴등을 벗어날 수 있게 우리 모두 해야 되는데 아프고 힘든 사람 많이 쟁여 나갑시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영교 위원 즐겁고 힘차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가부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너무 답이 짧은데.

(웃음소리)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한번 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연희 위원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의 지명으로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관 하나 바뀌었는데 여가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성과를 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도 아까 여가부의 기구 확대, 조직 개편 말씀드렸는데 그중의 핵심은 지금 우리 부처에 3개로 나뉘져 있는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을 여가부에서 일원화해서 가져오는 것도 조직 확대·개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하고 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나눠서 방과후보육이랄지 아니면 아동·청소년 지원 그리고 가족, 예를 들어서 한부모나 미혼모 양육비 이행 관리 이런 것들을 세 부처가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영유아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면서 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여성가족부로 가져오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었고 아마 대선 기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아동 부분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최근에 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아동, 청소년, 가족으로 연결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 직원들과 함께 저희가 이관 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도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 것을 실제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직기구로 확대하는 부분은 생각이나 구상만 가지고는 안 될 테고 부처 간 협의랄지 아니면 총리나, 국무위원이시니까 대통령하고도 같이 협의를 잘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협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여가부 현안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이돌봄지원 사업인데 1년에 예산이 한 4700억 정도 되거든요. 엊그제 결산할 때도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게 집행률이 낮은데 이 중에 일부를 전용을 해서 운영비에 쓰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봄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랄지 관리하는 서비스 관리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데 그런 것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처음부터 너무 낮게 설계가 돼서 이런 부분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받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개선책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낮았던 것이 아이돌봄 사업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돌봄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가 현격히 낮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가부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아이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먼저 시급한 문제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보고도 받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뭘 지원해야 되는지, 특히 운영비가 취약해서 아이돌봄사들에 대한, 돌보미에 대한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

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한 현장 행정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보도를 보거나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을 보면 5명 중의 1명이 결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산이 또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선진 국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15만 명 정도나 되고 그중 5명 중의 1명이 결식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것은 여가부가,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미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다면 저출산 대책에 관심을 쏟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지아 위원 후보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성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남성들이 받는 부분적 역차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을 강조하셨지요.

지금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 29%, OECD 꼴찌입니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 7월 달을 보면 56%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 약자입니다. 남성은요? 남성도 약자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남성들도 약자인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위원 그렇다면 강한 성평등가족부는 대상이 현재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 그리고 남성이 되는 거겠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말씀하신 성평등가족부가 확대된다면 우리가 이름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성평등가족부로 한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청소년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궁금적으로 답을 주셨고요. 정춘생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에 보면 캐나다는 여성·양성평등청소년부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추가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간사님께서도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요.

캐나다는 ‘양성평등’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는데 양성평등과 성평등 차이가 뭡니까? 여쭤봅니다. 조금 이따가 끝나고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양성평등, 성평등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조금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데 의미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행 법체계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에 대한 정의는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기본 이념이 여성,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여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모성,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는 어차피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양성평등으로 유지해도 된다라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시 여쭤봅니다.

현행 법체계상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는 있고 성평등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두 용어는 혼용이 되고 있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동의하시지 않는 걸로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강화 방안을 묻는 서면질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한다고 하셨습니다. 왜지요? 동일하지 않아서 그렇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에 맞춘 위원회 명칭 개정입니다.

○한지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성평등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성평등위원회로 하는 것은 부처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성평등과 양성평등 차이가 됩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초기에 그 법이 일정한 기능을 발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계적인 평등이 사회 전 영역으로 뻗어 나가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한지아 위원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평등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성평등·양성평등 오해가 아니라 논란이 많은 거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것이 저는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데 논란이 많습니다.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간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가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도약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 지금 해야 됩니까?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지금 양성평등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논란이 되고, 이를 바꾸면 분명히 이 얘기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그런 정책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 좀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이념적인 게 아니라 그냥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이번 정부 실용정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분만 좀 더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말씀하세요.

○한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형식, 구조적 평등, 양성……

답변서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성평등은 외국어 번역, 유엔의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를 번역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에서 사용하면 그대로 우리가 사용합니까?

WHO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거기서 코로나19를 공식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COVID-19'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 수용성을 생각해서 '코로나19'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용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성가족부가 정말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논란 하지 마시고 실용적으로 가고 좀 제발 단계적으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의 뭐 특별한 답변……

○한지아 위원 후보자께서는 어차피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논란이 더욱더 나타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연희 위원 한지아 위원님께서 논란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한지아 위원 그건 후보자께서 이미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은 불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뭐가 논란이 되고 뭐가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지는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지금 어쨌든 현재 헌법상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런 개별적인 차별 시정 장치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아직 조직개편이 안 왔고 행안위도 안 갔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여성가족청소년부, 여러 가지 앤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픽스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넓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서범수 위원 죄송한데요. 왜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마사지를 하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커버를 하고 뭐 각색을 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위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되지 위원장님이 그걸 받아서 또 우리 후보자한테 어떻고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회의 진행하는 데 맞는가 싶어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선 지금부터는 마사지 없이 후보자한테 바로 스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유난히 뛰어난 위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옛날에 서영교 위원님께서 행안위원장 하실 때 그려셨어요.

(웃음소리)

○서영교 위원 제가 행안위원장 할 때 잘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인정하시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갑자기 뭐부터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후보자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쭉 살펴봤더니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하셨더라고요.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구조의 피해자다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계속 촉구해 오셨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정부의 공식 5대 폭력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성매매 그리고 성적 착취 등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자, 이 지적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후보자 지명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서 정책안으로 넣 수 있는 부분을 의논한 바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이게 인신매매방지법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물론 법은 일찍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2년 8개월이 되도록 법이 규정한 지역 피해자보호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인신매매 피해는 매년 600~700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 질의 때 물어봤더니 행안부 경찰청인가 여기서 확인한 바로는 한 해에 한 5000여 건이 신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수치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매년 600~700건 정도가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피해자 확인서 발급은 고작 31건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확인서 발급받으면 취업 지원도 되고 법률상담도 되고 의료비, 생계, 귀국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 발급 확인서가 31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심사하는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역 피해자보호기관을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발급과 관련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의 의지 혹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지금 한국의 인신매매 상황에 대한 저희 대응이 법과 권익보호기관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국내의 인신매매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폐지, 존폐 논란이 되고 있던 여성가족부에 인신매매방지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맡겼을 때 지역과 연계가 되지 않고 행안부, 법무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확인서가 불과 30여 건밖에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을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개선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지난 3월 달에요 앞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께서 인신매매방지법 소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발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이것에 대해서 수용의 뜻을 밝히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건 제가…… 수용을 밝힌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청의 기능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법을 수용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에 대해서 인권의 관점에서 보호하고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안 하겠다라는 포기 선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여가부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서범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려하셔서 이관하셨겠지만 여가부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 또 그동안 쌓여 온 피해자 지원의 노하우들이 함께 기능할 수 있도록 제가 장관이 된다면 다시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내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서범수 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리박스쿨 들어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들어 봤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교육위에서 청문회도 이루어지고 했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는 불법 댓글공작팀 운영했다는 게 고발돼서 지금 수사 중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약간 매개로 해서 불법적인 행태를 벌여서 이것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놀랐는데 혹시 넥스트클럽이라는 곳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언론을 통한 정보 정도입니다.

○장철민 위원 저희 대전 지역의 지역사회,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이나 서울 지역에서도 일부 이게 조금 시민사회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리박스쿨과 넥스트클럽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넥스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들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위탁 해지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리박스쿨하고 넥스트클럽의 뭔가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나 의혹을 갖게 되는. 하나는 넥스트클럽이라는 단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센터 중에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 센터장님이 리박스쿨의 양성평등 성문화라는 데 교육강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센터장 자격으로 가신 것인지 넥스트클럽 소속으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넥스트클럽 소속으로 가셔서 아마 근무 중에 이 강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확인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가부 차원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리박스쿨의 교육강사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행복교육봉사단인가요. 이런 어떤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하고 넥스트클럽의 남승제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관계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넥스트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극우단체들이 약간 좀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니까 넥스트클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양성평등기본법 내 성교육 예산이 좌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끌어와야 한다고 해서 만든 단체고 지금 몇십 개의 학교에 들어가고 있다. 많은 단체에서 이 노하우를 알려야 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57개 중 대전 넥스트클럽에서 겨우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 한 개를 빼앗아 왔고 투쟁하면서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정방향 교육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넥스트클럽을 본인들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마치 칭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 예산이나 사업들 뺏어 와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나서야 된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막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사실 리박스쿨 때문에 늘봄학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굉장히 많은 흡집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 넥스트클럽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뒤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가부 관련 사업이나 예산 같은 것들을 탐하고 뺏어 오고 이런 종류의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가부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성폭력 관련된 교육들의 신뢰성 문제가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가 됐든 아니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나 다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사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어떤 단체들이 위탁을 받는 과정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 대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센터 관련된 회의록이 아예 남아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대전시 관련된 위탁기관 위탁 과정에서는 관련된 심사위원들이 완전히 편향된……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예, 다음 1분 빼겠습니다.

하세요.

○장철민 위원 편향된 질문들로 유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떤 지자체장의 점수 몰아주기가 있었다든가 이런 심사 과정이나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관이 되시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우리가 이런 성폭력 교육이나 청소년 상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특허나 문제 되고 있는 이 넥스트클럽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선정 과정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에 참여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조사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가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든 사업을 진행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의 정책들을 바로 세우는 신뢰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볼 생각인데, 후보자님께서도 장관이 되시면 이 기관의 운영 형태 그리고 이 기관이 위탁받는 과정들 그리고 실제로 교육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장관이 된다면 적극 살펴보고 이후에 국감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후보자님, 아까 얘기했던 성매매뿐만 아니고 교제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교제폭력 관련된 현장 활동도 그동안 많이 지원하시고 법률 지원도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통계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도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된 국가 공식 통계를 구축해서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범죄분석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관리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관련해서 국정기획위 내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구축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논의는 됐는데 최종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통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통계는 구축되어야 되나…… 다만 저는 통계가 구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사이에 교제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그 사이에 계속 현장과 소통하면서 통계 구축 전에라도 저희가 교제폭력의 어떤 변화하는 양상과 대응책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세워 보고자 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교제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작년에 제가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에 질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제 교제 살인의 경우는 열한 번 신고했었어요. 열한 번 신고했는데 그것이 임시보호조치조차도 안 돼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같은 번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신고가 되면 이 통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올해부터 이게 관리가 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부족하고요.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도 여성 살인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가족·친지에서의 살인 이걸로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연인 관계이냐, 배우자 관계이냐, 부모 관계이냐, 자녀 관계이냐 뭐 이런,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냐 이런 통계의 구축을 분명히 하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후에 입건 그리고 기소율, 처벌 이런 게 다 관리가 돼야 우리나라의 범죄예방 정책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입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셔서 저희 의원실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교제폭력 관련해서는 입법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들이 많이, 정춘생 제가 대표발의한 법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이…… 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저도 적극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좀 논쟁적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그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기관이 관련해서 입법을 해라 했지만 입법기관이, 국회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현재 결정 이후에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건강·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성가족부도 적극적 의견을 내고 아마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그 법안 통과를 지지해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21대 국회에서도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해서 발의는 됐었는데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저는 그것에 부합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시간 잘 지켜 주셨네요.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네요.

오전 중에 하던 것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때 말씀을 많이 끊어서요.

○서범수 위원 아니아니에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수용할게요.

제3자 진정사건 관련해서 오전 중에 후보자님께서 인용 의견서를 냈고 그 결정문에 첨부해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게 맞습니까? 다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잘못하면 위증죄 걸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잠깐 제가요……

○서범수 위원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인용 의견서를 작성해서 인권위에 보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게 그때 그거거든요. ‘표결결과: 기각의견(김용원·한석훈), 기권(원민경 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원민경 위원은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밝히지 아니하여 결정문 작성의 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인용 의견을 인권위에 보냈고……

○서범수 위원 인용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니고요, 인용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문은 안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저게 인권위원회에서

막 보내온 자료인데 지금 후보자님은 인용했다 하고 그런데 저기는 기권됐다고, 그다음에 밑에 ‘원민경 위원은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밝히지 아니하여 결정문 작성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어느 게 맞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제가 1분 정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서범수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 저래 돼 있잖아요. 제가 의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법한 의결을 막기 위해서 제가……

○서범수 위원 노력을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법한 의결을 막기 위해서……

○서범수 위원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다음 처음으로 돌아가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건 이게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에 대한 긴급구제 건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후보자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견책이라는 징계를 먹였기 때문에 보호 실익이 없어서 같이 동의를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수사는요, 수사는?

아까 말씀했던 지난번 제3자 진정사건 것처럼 우리 후보자께서 열심히 싸우셔서 그것을 어느 정도 관철을 하든지 의사표현을 하셨으면 결과가 다를 것인데, 그런데 수사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견책이라는 징계만 해서 했지, 그 당시에 보호 가치가 없어서 이것은 기각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징계만 가지고, 징계만 가지고. 그렇지요? 수사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수사.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러니까 위원님의 고견에 너무 감사드리고……

○서범수 위원 고견이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서범수 위원 아니, 설명……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범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때 수사 부분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줄 모르고 동의했던……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판단 미스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 판단 미스겠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것과 같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정치적인 책임이 있지 결과론 책임이 있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들어가서 세 사람이 다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어요. 그

러면 책임은 져야지요. 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아니면 다른 한석훈 위원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선하다, 나는 그다음 날 밤잠도 못 이룰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 왜 본인만 선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두 분이 나쁜……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범수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말씀을 잠시 더 드리면요. 그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제가 영장 청구된 다음 날……

○서범수 위원 그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래서 저희가 긴급성에 대한 어떤 착오로 인해서 제가 군인권보호관에게 바로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부분에 대한 긴급구제 건에 대해서 기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3분의 1의 책임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범수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다만 위원님, 원래 군인권위원회에서의 의결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유독……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같이 기각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사록도 없고 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의사록이, 저희는 회의록이 녹음……

○서범수 위원 그 부분이 없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녹음파일이……

○서범수 위원 녹음파일 달라는데도 안 주잖아요. 녹음파일 주세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마 특검에는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인권위 회의록의 일부로 녹음파일이 아직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인권위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1분 더 주세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그 녹음파일을 저한테 저녁……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제출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 제가……

○서범수 위원 아니, 인권위. 제가 후보자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권위원회 기조실장님, 그러면 자료 주세요, 녹음파일.

특검은 주고 왜 우리한테는 안 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그 부분도 확인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다니까요. 그 녹음파일을 주세요, 저녁에 질문하기 전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러면 긴급구제 일자와 2024년 1월에 진정 건을 기각시킬 때 회의록 녹음파일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 진정 건은 제외하더라도 금방 박 대령 긴급구제 건에 대한 녹음파일을 저한테 주십시오,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제가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인권위원으로서 제가 인권위에 확인했던 바로는 국회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녹음파일을 잘 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을……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청하잖아요. 제가 후보자한테도 요청을 하지만 인권위원회에 지금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요청해서 나중에 자료를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꼭 내 달라고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인선 내준다 하셨잖아요. 준다 하셨잖아, 지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니, 제가 구할……

○김한규 위원 저것 어떻게 구해요?

○서범수 위원 왜 없어요, 특검에 내줬다는데?

아니, 인권위에 내 달라는 거잖아, 인권위원회에.

○위원장 이인선 인권위에다 요청하라 이 말이잖아, 요청하라고. 인권위에서 줄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요청을 해 주세요, 주라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국회에서 요청하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요?

○서명옥 위원 아니, 후보자 쪽에서 요청하셔야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에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진숙 위원 전진숙입니다.

방금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3년 8월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했던 것 박정훈 대령에 관련해서, 지금 그날 당일 회의에서는 기각했던 것 맞고요. 기각되고 나서 그다음 날 이루어졌던 구속영장 청구 보면서 후보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다음 날 아침에 인권위 직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서 김용원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빨리 저희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소집 필요하다, 빨리 긴급구제 필요하다, 김용원 위원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런 취지의 문자를 제가 보냈고 그 문자를 보낸 이후에 인권위원회에 가서 김용원 위원님을 만났습니다.

○전진숙 위원 김용원 인권보호관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서 긴급구제 필요하다, 빨리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집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용원 위원께서는 ‘한석훈 위원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할 텐데요’라고 하면서 저에게 사무실에 가

있으라 그다음에 연락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재소집을 강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불응을 한 거고 실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인권위원회 전원위에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원 위원은 제가 본인을 스토퍼한다고 스토퍼 짓을 그만하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 결과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인권위원의 이야기를 묵살하면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끝고 가지 않았나라고 하는 심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제출했던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보니 2020년에 30건이었던 게 2024년에는 230건으로 무려 7.7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반기밖에 안 됐는데요 올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194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여가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건이 얼마만큼 더 많이 발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시정·보완 요구 건수는 2022년에 3건, 2023년에 3건, 2024년에 2건, 2025년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4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셨을 때 군부대 성희롱·성범죄 관련해서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장에 실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한 1분 정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진숙 위원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2021년도 공군 이예람 중사님의 사망으로 인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때 제2분과 피해자 보호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장으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군에 성고충예방대응센터를 전담기구를 구축하고 성희롱고충상담관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화를 시킨 다음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점검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군에 방문조사를 통해서 성희롱 사건을 또 확인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공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방문조사를 가서 왜 공군에서, 이예람 중사님도 피해를 입었던 그 부대에서 왜 하필 이런 사건이 났는지,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기 전에 국방부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기존하고 달리 긴장감이 좀 흘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 잠깐만요. 몇 초 안 남았는데요.

이후 여가부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세워 가실 건지

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총괄 조정권한이 더욱 확대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부처 협력을 통해서 국방부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대응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가부가 함께 점검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 후보자님, 우리 헌법 11조 1항에 성별에 따른 평등이 명시가 되어 있고 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됨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28개 조항에 나오고 있지만 성평등이라는 용어 역시 4개 조항에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일부에서는 성평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상 양성평등을 훼손한다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제3의성을 제도화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후보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박홍배 위원**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미성년인 따님 두 분이 슬하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미성년인 아이와 성년이 된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위험한, 이를테면 여성 전용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찜질방과 같은 곳이 위험에 처한다거나 이걸 추가적으로 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그렇지요. 전혀 아닙니다.

○**박홍배 위원** 젠더폭력 그리고 차별을 줄이고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려는 것 아닌가.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마찬가지고 OECD 다수의 국가에서도 성평등가족부라고 부르고 있고 이걸 굳이 양성평등가족부라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불렀을 때, 그러면 혹시 영어로 거꾸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다들 젠더 이퀄리티 미니스트리(gender equality ministry)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평등이 맞나, 양성평등이 맞나와 같은 이런 가짜 논쟁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이 구조적 차원에서의 차별을 어떻게 걷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요.

서면질의에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성별 임금격차 축소와 같은 문

제입니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아직도 OECD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한 3~4%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남성의 임금이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임금이 70 또는 7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별 임금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1.3%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와는 2.6배, 우리나라가 2.6배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들이 경력 단절되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하실 때 이렇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구조적인 양성평등, 성차별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거 고용노동부 업무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러니까 그 업무를 이제 여성가족부가 더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관하기 위한 논의가, 이관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전에 조금 있었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가급적이면 이 업무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박홍배 위원** 제가 환노위원이지만 저는 찬성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고맙습니다.

○**박홍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니까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박홍배 위원** 보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카드사마다 사용 가능한 매장,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 동일하게 다 다르고 또 품목도 너무 복잡하게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용품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신청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2개월 치, 12월에 신청하면 한 달 치밖에 주지 않고 또 신청을 하시면서 낙인감 같은 것이 이어진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이번 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가부에서 문제점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을 받으면서 청소년들이 낙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원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정춘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낙태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국정과제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거기에 여가부 국정과제도 들어가 있지요. 몇 가지 들어가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외람됩니다만 낙태라는 용어 대신에 임신 중지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예, 맞습니다.

국정과제 123개 중에서 98번째로 임신 중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내용 안에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합법화하는 국정과제가 들어가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여기 약물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그 개정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서명옥 위원** 모자보건법 말씀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저도 동의,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 내용 전부 찬성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법안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미뤄지고 있는 입법으로 인해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고 위험에 빠지고 있는 여성들을 돋기 위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후보자님의 말씀 맞아요.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 정말 중요하지요. 저는 그보다 더 우선의 가치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낙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헌법불합치가 되어 가지고 보완하라고 제시되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그런데 그 약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그 부분 의료계에서도 심히 우려를 하고 반대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신체적·정신적 모든 부작용은 온전히 여성들의 몫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 초기의 7~10주까지는 약물 중지 제도 도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교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국정과제에는 여가부의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주무 부처는 아마 보건복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왜냐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생명 존중이라든지 저출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많은 가치가 충돌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 단독보다도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처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참 단어가 생소한데 성·재생산 건강권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모든 국민이 이 부분은 용어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시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성의 몸을,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용어가 재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데 출산이라는 좋은 용어를 두고 왜 재생산이라고 합니까? 여성이 생산하는 도구라고 오해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기본권 중심으로 제안된 용어로 알고.....

○서명옥 위원 그래서 제가 성·재생산권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것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안다면 염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산권에서 가장 핵심 대목은 여성 스스로의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결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여기에는 개인의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 활발한 성생활 추구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결정권, 성적 관계를 맷을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즐겁고 안전한 성경험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맞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정확히 저도 그런 내용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은 납니다. 다만 내용은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서명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1분만 좀.....

○위원장 이인선 주고 있습니다. 하세요, 말.

○서명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성평등여가부를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연결지으면 제삼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게 어떤 의미에서, 제삼의 성이 저희가.....

○서명옥 위원 여기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저희가.....

○서명옥 위원 아까 조은희 위원님의 답변에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삼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문제와 실재하는

어떤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과 우리 법이 모든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자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명옥 위원** 저도 차별받지 않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모든 입법기관도 동일한 의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화의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를 저희가 시작할 때가 되었고 국회가 그 공론화의 장을 열어 주시기를 저는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것은 국회가 공론화의장을 열어 달라 하지 마시고요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 주동이 되어서 공론화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임신 중지 약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우선시해 가지고…… 그것보다도 저는 여성의 건강권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분야 있지요?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리고 종교단체도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님. 다음에 또 좋은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지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고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펌훼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평화의 소녀상 훼손입니다. 아마 전국에 150여 곳이 있는데 비닐을 씌우고 마스크를 씌우고 손을 묶고 인증사진까지 찍고 그래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나 보니까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 현장에서 할머니들을 비방하며 일본 극우와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던 인물이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채현일 위원** 이렇게 반복되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로서 어떠한 대책,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지금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또 제가 여가부장관이 된 이후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대로 할머님들의 증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고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여성들이 전쟁 가운데 폭력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데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는 역할을 여가부가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6명이잖아요. 평균연령이 96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채현일 위원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전숙 방통위원장은 위안부 강제동원이 논쟁적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논쟁적 사안이라고 그런 답변을 했고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동의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채현일 위원 동의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아직도 현 정부의 요직을 꿰차고 베티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채현일 위원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강요당한 피해자’. 그러면 그분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맞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물지각한, 역사인식이 천박한 이분들의 그 말은 진짜 귀담아들을 수도 없는, 그리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가부 국정과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여가부 국정과제에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016년부터 추진됐지만 10년 동안 성과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가부가 외교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民間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도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모든 국민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채현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장관이 되시면,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진상

규명이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채현일 위원 지금 여가부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그거입니다. 피해자분들의 생활 지원에만 머무르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피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서 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되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의 위안과 또 힘을 북돋기 위해서 직접 피해자분들 찾아뵙고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위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달희 위원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최근에 AI 기술이 도입되고 또 호기심에 많은 사람들이,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 피해사례가 작은 게 아닙니다. 현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정말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성범죄의 아주 일부만이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그 범죄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제가 최근 수년 동안 지원했던 많은 피해자분들도 딥페이크 내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보면 n번방부터 서울대 딥페이크 그리고 목사방까지, 특히 최근 지난 25년 1월에 불거진 자경단의 목사방이라고 별칭이 붙여진 그런 사건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평생 짚아먹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가시적으로는 어쩌면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대응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인권 감수성 확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성평등 부분을 통해서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삶을……

○이달희 위원 그런데 국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 청소년이 75~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옆집 아이, 내 아이가 정말 잔인한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n번방 지원도 하셨다는데 고민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너무나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n번방 피해자 중에 피해 학생 한 분은 밝은 날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본인의 성착취물 유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저는 그 고통이……

○이달희 위원 그래서 여가부의 역할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여가부 역할은 결국은 저희가 관련 부처, 경찰 검찰 법무부 그리고 행안부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함께 이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영상이 계

속 유포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가……

○이달희 위원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를 빨리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삭제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목사방의 경우는 텔레그램의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 ID, IP를 추적해서 범죄자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다 10대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지난 9월 달에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정보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이렇게 3개 법을 개정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입법체계는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여가부가 할 일이 남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곳에 홍보물을 노출시켜서 많이 보게 해서 이 부분이 장난이 아니고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또 하나는 요즘 많은 호응이 있는 건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서약서를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학기 초에 앤범 찍거나 이럴 때 남의 초상을 가지고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함부로 도용하면 이게 불법이라는 것, 처벌을 받는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읽어 보고 학생과 보호자가 같이 서약할 수 있으면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장관후보께서 말씀하신 여러 기관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와 교육청이 빠졌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가해자의 75~80%가 10대 청소년인데,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10대의 경우에 교육이, 그동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하고 있으나 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이 학교와 여가부를 통한 교육들이 중복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교육이 좀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해 보겠고.

저는 기존의 n번방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때 가해자들이 성인도 있고 10대도 있고 그랬었는데 결국 우리 사회의 기준부터 누적돼 왔던 성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인식이 10대까지 내려갔다, 10대만 잘못이 아니라 20대·30대 성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10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위원 후보자님, 아까 질문이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이 심각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이주희 위원**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서에서 피해자 보호 정책의 문제점으로 미흡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상황을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도와 기술이 많이…… 제도가 보완되고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보완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지원해야 될 기관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물리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조치들, 구금할 수 있는 구속이라든지 잠정조치 이런 조치들이 있지만 이것이 잘 집행되고 있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면, 현재 경찰청 수기 통계기는 한데—아까 통계 작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이 통계를 보면 우선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정말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집행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또 구속률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4호의 저조한 집행 관련 원인 중 하나로서 법원의 소극적인 인용 태도가 지목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이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피해자를 앓게 되는 그런 아픈 상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현재 스토킹방지법 5조를 보면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 교육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강화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당연합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보면 수사기관을 제외하고는 사법기관을 포함해서 국가기관이 교육의 필수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법원도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한데요.

법을 좀 더 강력하게 저희가 개정해 나갈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적극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성을 높일 복안이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답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법원도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라고 해서 판사님들께서, 그러니까 법원 법관들이 모여서 성폭력 관련 사건의 실효적인 대응과 판결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감히 추정컨대 아마 이 스토킹에 대한 부분도 법원의 그 연구모임과 함께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 방안 중 하나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스토킹범죄 양상을 보면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오고 그 과정에서 풀려나서 다시 쫓아오면서 실제로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런 참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초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면서 신속하게 피해자의 주거를 이전하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질의에서 주거지원사업 언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지금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요. 여기 보시면 보호시설 입소율, 주거공간 입소율 모두 다 절반 이하인 상황인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 사업의 예산집행률도 사실 50%대, 70%…… 90%, 100%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가부 결산서에도 이 부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후보님, 스토킹범죄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주희 위원 제가 잠깐…… 지속기간 평균 지금 한 8.63개월인데 주거지원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지원주택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이 주거지원사업 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께서 보호시설 거주기간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 방안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 예, 지원책 잘 마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이번 질의 과정에서 ‘제3의 성은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의미는 다르다.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조은희 위원 후보자께서는 차별금지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동의합니다.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차별금지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조은희 위원 그러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토론의 장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실 복안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토론의 장을, 사실은 그것을 계기로 더 새로운 여러 많은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다만 차별금지법의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고 국회에서 결국 입법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회가 그 토론의 장, 공론의 장으로 기능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여가부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약간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별금지법이라기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적 차별에 대한 것은 다 있는데 모든 차별을 아우른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도 되겠지만 종교계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포장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방향은 맞지만 이로 인해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민생경제 회복 등 시급한 과제가 지연될 수 있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즉 유보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주장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야지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어로 얘기를 하시면……

파워포인트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방금 제가 인용한 말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김민석 총리 역시 외신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반대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는데, 대통령과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갈등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차별금지법 도입해야 된다, 국회에서 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국무위원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대통령님께서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일수록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그러면 국무위원이 되셔도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국회에서 열어 주시면……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동성애는 성적지향, 개인이 갖고 있는 성적지향에 대해서 찬반 논의를 할 수 없는, 제가 특히 인권위원회로서 관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나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표현 또 ‘나는 동성애에 찬성한다’처럼 개인의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차별·혐오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차별이나 혐오의 발언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종교의 자유의 의미 내지는 표현의 자유로……

○조은희 위원 종교 얘기 아닙니다.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랬을 때 이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으로서 제가 인권위법에 따른 판단함에 있어서……

○조은희 위원 제가 굉장히 간단한 것을 여쭤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반대한다는 것이 위원님, 잘못하면 타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혐오, 배제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조은희 위원 ‘나는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반대한다’, 이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의지라기보다 차별·혐오에 해당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관련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예, 1분 더 주세요.

○조은희 위원 최선의 방안이 뭡니까? 후보자님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행 형법처럼 폭행·협박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만을 강간죄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제기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발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선 그거는 마치고요, 질문 다 하시고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 주십시오.

김현숙 장관이 과거 때 양성평등 기본계획서에서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철회했습니다. 여가부장관입니다.

김민석 총리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총선 공약에 넣었다가 실무진 착오라고 바로 집어 넣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논란을 키우지 말고 애매하게 대응하라고 했을 때 후보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제 2분 동안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들께서 아마 더 잘 아실 텐데요. 제가 후보자 지명을 받은 바로 그날 오전에 저는 성폭력상담소에서, 미국에서 검사를 거쳐서 법학 로스쿨 교수로 계신 분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들과 성폭력상담소에서 저희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주제의 내용은 왜 각국마다 다른 법제화에서 강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그것이 가장 주되게 나왔던 부분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준강간 아시지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만약에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 100명의 피해자들 중에 경찰·검찰을 거쳐서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 20%도 되지 않고 그중에 무죄판결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님, 제 질문에 답변을 또박또박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그리고 저는 그 입법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는 게……

○조은희 위원 제가 강의 들으러 온 것 아니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각지대는 바로 그러한 부분,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비동의 강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 지명되기 직전에 했던 사건도 바로 약물 내지 술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분이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갑자기 일어났더니 본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 이분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무혐의 결정의 부당성을 이의신청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장관후보로 지명돼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가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다, 우리가 이런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여가부 또 국회가 그대로 두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실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비동의 간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내용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없는 가운데 내지는 기존에 들어 봤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해서 생긴 오해를 우리가 풀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을 제가 감히…… 제가 어떤 말씀을 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후에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조은희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 3차에 가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또박또박 잘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채현일 위원 너무 오랫동안 질의하시네요.

○조은희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후보자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진행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꼭 강의 들으러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님, 얘기가 해명이 길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일단 김한규 간사님 질의하시고요.

○김한규 위원 오늘 후보자님이 인권위원회 군인권소위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력들을 보니까 인권위원회가 되시기 전에도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인권 보호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군인권 보호.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왜 여성분이 군대 문제에 이렇게 관심 갖고 활동

을 하시나, 자료 보다 보니까 어머님이 보훈급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어머님이 왜 보훈급여 받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김한규 위원 남동생이 군대에서 순직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후보자의 가족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래된 일이라고 하지만, 늦었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젊은 남성분들이 젠더 이슈에 되게 민감해요. 그중의 하나가 군대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군대 내에서 사망하신 분이 있었고 여전히 실제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장병들이 있고 최근에는 여성 장병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로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넣으려고 하고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남성·여성 구분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성평등한 사회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젊은 세대들, 여론조사 PPT를 보시면 10대, 20대의 경우에 여성이 더 차별받는지에 대해서 남녀 간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다시피 여성분들은 경력 단절 이슈도 있고 객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보수를 적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40·50대들의 어떤 형태하고 실제로 20대들이 느끼는 것과 실제 상황이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들고 다 스스로 경험했던 자기 세대의 문제들은 인식을 많이 하는데 20대들이 왜 저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권들이 항상 답을 잘 못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성평등가족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저런 젠더 이슈에 대해서 남녀 간의 인식이 다른 부분이 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것을 뜨거운 감자니까 먹지 말고 그냥 피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부처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나름의 어떤 해결 방안 내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도 이번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10대까지,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 좀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발견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 부분은 10대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가 다 함께 모여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답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질의 때 제가 가족·청소년 업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돌봄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여가위를 지금 4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매년 나오고 있고 여가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균 대기일수 30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30일이 아니라 처음 신청해서 배정받는 사람들만 기준으로 30일이지 계속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아예 빠져 있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데 충원하는 인원 중의 한 20%만 실제로 활동을 하는 문제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얘기를 여가부가 안 듣지 않았을 텐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혹시 장관으로서 해야 될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여가부가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저출생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이 문제가 저출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고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 일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는 낮으면 당연히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인지 상정이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동하는 그 부분들을 그분들의 어떤 열정에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이 우선이고 그걸 위해서는 저는 결국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에서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국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청문회 잘 통과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라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거기에서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 중이고 우리가 현재 A 등급입니다. 1등급 A등급인데 일부 혁직 인권위원들이 GANHRI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추도록 요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희가……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여러 많은 의견서를 내던 중에 딱 그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제가 이다음에 시작하면 그때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선 예, 확인해서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가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 것 어느 부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계신 분이 우리나라의 등급을 낮춰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는 것은 저는 보도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마치시고 나중에, 중간에 쉬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이상으로 2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잠시 정회할 예정인데 첫 번째 질의 순서인 서영교 위원님께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차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 서영교 위원님 질의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는 답변 포함 3분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계속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든 3분 하고 가야 여러분도 편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4선인데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위안부 할머님들이 모욕받고 계시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요?’라고 국회에 와서 집회를 하셨어요. 거기에 저를 부르셔서 ‘꼭 위원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여가위에 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여가위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걸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지요.

이번에는 우선순위로 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로 해서 아까 말하듯이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하고 욕보이고 그런 자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처벌돼서 두고두고 역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법안을 제가 냈고, 좀 더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 이는 독일 일본 그런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혐오 스피치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왔던 이유이고 그것을 여가부장관에게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평등가족부라고 하는,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든 이름입니다.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저는 그렇게 확대하고 싶습니다. 확대한 이름은 청소년들까지 확대하고 더 일을 잘하자라고 하는 확대였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양성평등, 성평등 저는 같은 의미였고 양성평등, 두성이 대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의미 지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동의간음죄, 용어가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피해가 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비동의간음죄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성적인 사랑을 하는데 ‘오늘 할까?’ 이래야 되나, 사실 이런 말 하기 참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비동의간음죄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강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했듯이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취했고요 약물을 먹였습니다. 그랬는데 강간당했어요. 이럴 때 이것이 강간에 해당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을 강간사각지대법 이렇게 저는 이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형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물, 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지위, 지위가 되게 높아요. 아이에게 거의 강제하듯이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말 못 하고 당한 경우, 이런 사각지대를 위한 내용이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질의가 우선 끝났고요. 오후 8시에 속개해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3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 후보자님, 아침에 한 질의부터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피해호소인 논란을 종결시키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확실한, 분명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기재된 경력을 보면 2007년부터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2009년도부터는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몸담고 계신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를 대리를 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지원하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 두 단체는 그때 당시 기자회견에서 A씨를 위력 성추행 피해자로 정확하게 칭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정당민주주의가 국민 상식에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당의 이익보다는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무위원이십니까? 아니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민주당 윤리규범에 아직도 피해호소인 용어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어떠한 정당의 윤리규범에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기본적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지아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용어 사용에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정당에 있어서, 아니면 그렇게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윤리규범에 있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동의합니다.

○한지아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정당을 초월한 그런 가치 기반의 답변을 앞으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고맙습니다.

○한지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평등, 양성평등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차이가 어떤 건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아시지요, 성평등에 대한 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게끔 단계적으로 반보,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기를 장관이 되시면 이 정부에도 요청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국무위원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인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마지막으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에 대해서 안타까운 입장을 김용원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다고 하셨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외부로는 목소리를 안 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인권위원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제가 8월 달에, 8월 9일인가……

○한지아 위원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확인했던 김용원 위원은 제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됐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더 목소리를 안 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인권위……

○한지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과하셨지만 앞으로 국무위원이 되셨을 때 국가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만약에 되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미애 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서 제가 후보자님께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여성들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또 경력이 단절된 기간에 육아, 가사 등의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께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공약이 발표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어떤 네티즌은 ‘경력이 끊긴 게 아니라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단어 하나만으로도 코가 찡하고 프라이드가 생긴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도 듣고 싶고 이것을 이후에 정책에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텐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인식을 전환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이 일을 왜 저희는 그동안 하지 못했을까, 저도 정말 코끝이 찡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임미애 위원 모든 정책에서 이 용어들을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의 관점도 전면적으로 재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결위 때 질의를 했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여가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갈수록 늘고 있고요. 특히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이것을 방안을 마련하겠다, 법안이 이게 5건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제 법이 정비가 되면 이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 부처가 그래도 여가부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부, 법무부 그리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데 힘써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다면 잠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살펴봤었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지난 4월에 참여했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 될 아동으로 저희가 이후에 정책집행 과정

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타 부처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생활동반자법 이야기를 꺼내셔서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감사했고요. 생활동반자법 입법에 대한 논의 자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와 논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양한 다른 종류의 가족제도에 관련된 노력들을 기준부터 해 왔다면 사실은 생활동반자법 논의도 국회 내에서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다른 종류의 가족제도와 관련된 정책마저도 진도가 안 나간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단 하나는 후보자님도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관련된 법이 법무부나 여가위 소관 법은 아니다 보니까 부처 간 협의에서 리더십을 갖도록 애쓰셔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년 정도 되면 건강가정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야 됩니다. 5차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4차 계획에도 물론 이런 가족제도와 관련된 유사한 내용들이 꽤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또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5차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그런 거거든요, 노인들의 상호돌봄 가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사실은 생활동반자법 논의에서 메인이 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우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고독 그리고 어르신들의 고독함, 이 고독들을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가족제도의 변화가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포섭해 낼 수 있는지가 전면에 나섰더라면, 이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여가부의 리더십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가족계획에서의,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의 진전 그리고 지금까지 여가부가 가족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국회의 법 논의할 때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좀 진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시간이 짧아서 이따가 개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요즘에 고용공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환노위 있을 때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같은 것을 낼 때 프리랜서나, 지금 일종의 약간 비정형 노동 형태가 워낙 많아져서 이 안에서의 성희롱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섭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노동법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내고 법안도 내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노동법적인 진전이 없더라도, 여가부 내에서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할 때라도 프리랜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 이슈라든지 노동인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먼저 나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용형태공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비정형 노동, 프리랜서 이런 쪽에서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먼저 다가가서 이 법안을, 제가 오기 전에라도 여가부에서 먼저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요청을 드렸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길 소감에서 말씀드렸던 바 있고요. 이 생활동반자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프리랜서와 같은 다양한 비정형 노동자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가부가 좀 더 힘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와 소통해 나가고 그럴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잔뜩 숙제를 받아 가는 기분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그만큼 기대가 크고요. 새로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확대 개편돼서 적극적인 정책과 행정을 펼쳐라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정책도 보고 많이 받아 보셨습니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보고는 받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소관 복지시설이나 상담지원센터나 보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운영비가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청소년 관련 시설도 타 부처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종사자 인건비 비교를 해 봤더니 8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래도 상담도 하고 청소년의 활동 상황도 잘 아는 상태에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자격증이 적어도 석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분들이 맡고 계신 역할이 굉장히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고 치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타 부처와 협력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해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진전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고맙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아까 많이 있었는데요. 아이돌보미가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그거에 비해서 부족하고 거기다가 또 미스매칭이 돼서 수요는 많은데 대기자, 대기기간이 굉장히 길고 김한규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평균 33일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매칭이 된 사람들끼리의 평균인 거고 아예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질 높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와 광주 관련 사례를 보시면서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용도 일부 부모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광주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가부에서도 저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질적 관리를 전제로 하고 그 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모들한테 지원함으로써 그래도 많은 수요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이돌봄 사업이야말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속 쟁여 나가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또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후보자 지명이 8월 13일이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마포구 아파트, 공동명의로 아파트 갖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를 후보자 지명 3일 후인 8월 16일 날 모친과 중개인도 없이 보증금 7400만 원에 월 150만 원 임대계약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모친께서는 2020년부터 해당 주소지에 전입했고 21년부터 세대주가 됐습니다. 왜 갑자기 임대차계약을 했을까요, 25년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조금 더 보여……

○서범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왜 이랬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희 어머니는 세대주 등록을 21년에 하신 것은 아버님과 두 분이 같이 저희 집에 거주하셔서 아버님이 세대주니까 어머님이…….

○서범수 위원 그런데 본인 가족은 2019년에 목동으로 이주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아파트에 어머님이 들어가셨어요, 부모님이.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모친은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재산 고지도 거부를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20년부터 월세를 받으셔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서범수 위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때는 보증금 5억 2000만 원 계약이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거는 저희가 아직 자료 제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 자료 제공을 안 해 줘요, 그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서범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 제공을 내가 나중에 받아 보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내용이 그대로라면 제가 러프하게만 따져도 9000만 원 정도는 중여를 해 주셨고 중여세를 탈루를 하셨다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희 부모님은 2014년부터 2020년 2월 13일 정도까지 저희 같은 아파트 105동 506호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6년간. 그리고 저희가 2019년에 목동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곧 계약이 해지되는 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저희에게 지급하시기로 하고 저희 105동 805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임대인이이……

○서범수 위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희에게 보증금을 직접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저 사이에 중여는 없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계약서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확정일자일이 있는 서류를 저희 직원이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계약서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자료를 안 주시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19년도에 목동으로 이동하셨고 부모께서는 2020년도에 그 아파트에 들어왔고 그런데 25년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요. 그러면 그 5년 사이에 뭘 했느냐, 5년 사이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음에 더 물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 질의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전진숙입니다.

올해 유난히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서 화재사건에 노출이 되고 사망했던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장 투석을 하러 갔던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러기도 하고요. 새벽부터 일 나가신 부모 때문에 새벽에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인데 희생된 아이들이 보통 12살, 9살, 6살, 10살 그리고 또 자매가 같이 있으면서 자매가 같이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은 나홀로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여가부의 2023년 가족실태 분석에 의하면 30분 이상 혼자 있는 아이들, 초등학생의 비율이 42.6%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도 2023년 아동종합실태 조사를 보니까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다’ 하는 답변이 2013년에 비해서 6.1% 정도가 더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아이를 돌보는 공간으로 오후 8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전국에 4000곳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야간이나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함께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일정 정도의 공공돌봄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기는 한데 보통 주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틈새 돌봄을 어떻게 할 건지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복안을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공돌봄이 필요하다는……

○전진숙 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 혹시 장관이 되시고 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아주 꼼꼼하게 조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으면서 국가AI전략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의 2026년 예산안이 지금 10조 한 1000억 원 정도가 설정이 돼 오고 있는데요.

아이들, 어린 청소년들은 어느 날 갑자기 AI하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만져 봐야 되고 실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게 AI하고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에 국립청소년진로체험수련원을 하나 짓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이런 공간들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부처에서 뭔가,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저희가 청소년 활동을 증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만 주어진다면 저는 전국적으로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진숙 위원 후보님, 예산은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만들고 뛰어다니셔야 되고요. 청소년들이 갈수록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른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 활동 공간을 줄일 수 없는 거고요. 방금 말했던 AI 친화 수련원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대안을 이후에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와 돌봄에 관한 서비스들 저희가 이번 결산 과정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여성 1인 가구 또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고립 가구,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과 같은 정말 우리 사회에 돌봄이 꼭 필요한 곳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는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하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더 세심하고 더 섬세하게 국민들께 다가가고 접근해서 이런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가정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일들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9월 1일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삼각김밥만 사요’ 신고버튼 누른 편의점……”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봤습니다.

○박홍배 위원 울산 남구에서 2024년 11월에 시작한 편의점 위기이웃 발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 인프라지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편의점에 방문해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서 이상 징후를 찾아서 이분들은 조금 위기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포스기 단말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그 버튼을 누르면 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연결이 되어서 구청 직원이 이분들을 찾아서 이분들께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더라고요, 보니까. 구청 복지지원과의 한 주무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고 일례로 60대 여성이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에 가셔서 삼각김밥 하나만 구매하는 것을 점주께서 신고를 하셔 가지고 식사 바우처, 복지사의 관리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배우자를 잃으시고 우울증으로 스스로 식사를 거의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뇌경색 후유증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로 빚에 시달리던 어떤 분은 계산대 앞에서 계속해서 사려고 했던 물건들을 놓고 가시는 것을 발견을 하고 역시 이 직원의 신고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편의점이 저희가 생각지 못한 우리 이웃을 함께 돌보는 주민의 눈이 되어서 주민들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이 작은 지자체에서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위원장 이인선 1분 더 드리세요.

○박홍배 위원 작은 구청에서 시작된 이런 새로운 모델이 지금 대전 지역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달희 위원 특혜 주네.

○위원장 이인선 신입이기 때문에.

하세요.

○박홍배 위원 장관이 되시면 중앙부처의 업무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박홍배 위원 장관님, 혹시 기사 읽으시고 느끼신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이것이 정말 위기에 처한 분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해 낸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의 정책에도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배 위원 저희 당 윤리 규범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감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고맙습니다.

○박홍배 위원 저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부분은 피해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후보자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곧 끝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몇 명인지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0.76,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0.75에서 아마 금년에는 0.79로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그렇지만 저는 이것 또한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향후 아마 점차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0.75라는 합계출산율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유지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구 유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성의 군복무 문제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역법 제3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여성도 징병하거나 자원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하에 검토해야 한다는 보충적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서 최근 또 이러한 병력 감소에 대해서 국가안보 차원의 대책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후보자님께서는 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입장이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저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모병제와 징병제의 다양한 의견 또 해외 사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과 군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정말……

○**서명옥 위원** 후보자님 의견만 간단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법안과 현재 군의, 한국의 상황, 국방부의 환경 등을 두루 살펴서 저희가 좀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여성 징병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추후에는, 다만 근간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이후에 좀 더 다변화된 군의 구조하에……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안 심사가 진행된다면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에 대한 입장을, 의견을 좀 조율해 주시고요. 또 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 등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내의 의견을 좀 모아 가지고 추후에 저희 의원실로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 하셨습니까?

○서명옥 위원 예.

○위원장 이인선 1분 더 드리려 했는데 다 끝났네요.

다음으로 김남희 위원님 5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보충질의를 못 해 가지고요.

○위원장 이인선 앞에 질의를 못 했어요.

○김남희 위원 후보자님, 청문회 답변을 들으면서 기대가 큽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 연인, 남자친구,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 살인미수 사건이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김남희 위원 이를 전에는 일본 도쿄에 거주하던 한국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이 일본까지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4년에만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위협받은 여성은 374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살해된 여성 피해자 3명 중 1명이 살해 이전에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을 경험한 이력이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경찰의 신변안전조치를 받던 중에 사망한 사건이 총 13건인데 전원 여성이고 모두 전 연인이나 현 배우자에 의한 살해, 즉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받는 도중에도 사망했다는 것은 가해자 분리나 피해자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가족부가 피해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동의합니다.

○김남희 위원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4년간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체가 네 차례나 열렸는데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뀐 올해 8월부터 여성가족부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해서 처음으로 부처 협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에 여가부가 빠졌다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보이고요. 여성가족부가 젠더폭력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전혀 해 오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제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공백을 점검하고 젠더폭력 사망 사건들 조사에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나아가 각 부처에 대응책을 요구하고 국가 차원의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범정부 대책에 여가부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의 여가부가 교제폭력,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교제폭력 법적 근거를 담은 법제도 마련하고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가해자 격리조치 강화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잠

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등 여러 가지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들 모두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앞으로 이런 법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청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구조금, 생계금, 이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검찰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사건송치 이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월 1회에 사건을 모아서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에서 지원까지 평균 56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데 치료비나 생계비, 구조금 지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범죄피해자 구조금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해야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해서 피해자가 조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지난 7월 31일에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라고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하신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앞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책임을 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명심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제가 국정기획위에서 젠더폭력 관련된 대응논의를 했는데요.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함께 논의를 해 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을 좀 잡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역할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명심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오늘 질의 중에 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 그러니까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라는 이 용어 중에서 뭐가 국제적 트렌드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국제사회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요.

○채현일 위원 성평등이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성평등이라는 것 자체는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오해 때문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유엔이나 OECD, EU 등 국제기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평등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가부의 영문 명칭이 젠더 이퀄리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이걸 번역을 하면 성평등 그렇고요. 그리고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것도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인 평등, 헌법상에 규정된 보편적인, 포괄적인 평등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성평등이 제삼의 성을 인정한다는 둘 또 위헌적이라는 둘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양성평등이니 성평등이니 용어를 뭘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 뭐가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격차, 돌봄과 경력단절 그리고 청년세대가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성평등의 개념과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모두 다 동의하고 그런 내용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또 헌법상 위헌이라고 그래요, 성평등이. 왜 그러냐 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양성평등진흥원이 있고 헌법상 36조 1항에 양성평등이 규정되어서 성평등이라는 말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36조 1항의 양성평등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맥락에서 규정한 거지 보편적인 개념의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헌법 전반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채현일 위원** 그리고 포괄적 평등을 규정하기 때문에 성평등은 오히려 헌법에 부합한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제3자의 성을 인정하네 마네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후보자 서면답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양성평등은 성별 간의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반면에 성평등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구조적 차별을 해소해서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자는 적극적 개념이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맞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현일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논의와 주장이 있었지만 성평등은 국제적 기준

에 부합하고 또 헌법의 가치에도 부합하고 또 성평등가족부가 나아갈 지향점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의견과 저도 동일합니다. 고맙습니다.

○채현일 위원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가위 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장관후보님, 오후 질의에서 여당 동료 위원님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이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물지각한, 역사 인식이 천박하다고 하시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황당하게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진숙 방통위원장 짧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보도한 기자가 이진숙 종군기자로, MBC 기자로 유명하던 분입니다. 며칠 전 8월 21일 날 우리 당의 최형두 방통위 간사께서 방통위법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당시 문화일보로 워싱턴 특파원을 같이 했답니다.

하면서 한 얘기가 ‘워싱턴 특파원 당시에 위안부 할머니의 보도를 가장 많이 한 분이 이진숙 위원장이다. 그리고 미국 하원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될 시기에 저와 함께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교민 사회에서 함께 그 여론을 독려하고 했던 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워싱턴 특파원으로 위안부 결의안 미 의회 통과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이 위안부 강제동원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여가부장관후보자 검증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제안하시는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공직자에게 대놓고 집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그래도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존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안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 개정안까지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기가 보장된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손발 다 자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까지 개정해서 내쫓으려는 행태에 대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1분 더 주세요.

○이달희 위원 인권위 비상임이사를 지낸 입장에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이 부분이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후보자」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벌써 승인을……

장관후보자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흥분해서……

국제적인 기준의 이런 부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미국 FCC 위원장이랑 마음대로 영어로 소통도 가능하고 유럽에 가서 BBC 이사장과 마음대로 소통이 가능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언론인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런 부분이 인권 유린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인권위원회 비상임이사 하셨잖아요.

오늘 사퇴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이달희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희가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정무직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국회에서 인권위원들에 대하여도 과거에 비상계엄 이후에 인권위원들이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임기를 종료하고 새로 위원들을 선출하는 내용의 인권위 개정안도 발의된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국민의 대표이신……

○이달희 위원 답변을 피해 가시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어려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이달희 위원 어려운 과제를 왜 이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 가지고 오십니까?

○전진숙 위원 후보가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후보한테 그렇게 말씀……

○위원장 이인선 그러니까 후보한테 생각을 물은 겁니다.

○이달희 위원 후보가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니까 묻지요.

왜 이렇게 변호사가 많으십니까, 후보자가 변호사인데?

○서범수 위원 오늘 여가위 이상합니다. 왜 이래요? 장관후보자가 왜 이리 많아요?

○김한규 위원 저희 실제로 변호사들이 좀 많아요, 여기에.

○서범수 위원 수입료 냈어요?

○이달희 위원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서범수 위원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이 안 되더라고.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님, 명쾌한 답을 지금 못 하셨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할 수 있는 답을 충분히……

○이주희 위원 답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께서 명쾌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이연희 위원 저 질의를 안 했는데……

○위원장 이인선 좀 기다려 보세요. 곧 드릴게요. 늦게 오셨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겁니다.

○이연희 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위원** 후보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여성가족부의 최근 5년간 가족정책 총괄 및 조정 업무 관련해서 관계 기관의 협의 내역을 한번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PPT 보시는 대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사회관계장관회의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면 전통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해 오던 가족정책으로 보이긴 하지요. 보이실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보입니다.

○**이주희 위원** 후보자님, 혹시 경제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아마 장관에 취임하시기 전이라서 파악이 잘 안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부장관 등을 비롯해서 여성가족부장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규정이 보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이주희 위원** 후보자님, 혹시 ‘경제정책이 곧 가족정책이다’라는 말 동의하실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동의합니다.

○**이주희 위원** 최근에 우리 사회 상황을 보면 경제정책이 가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실제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이주희 위원**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주거정책, 부동산정책일 텐데요.

또 다음 PPT 보시면, 2023년 OECD 보고서에서 주택 지출 증가가 합계출산율 하락과 연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가 곧 출생률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혹시 ‘위장 미혼’ 용어 들어 보셨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들어 봤습니다.

○**이주희 위원**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해서야 혼인신고를 하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신혼부부 혜택이 혼인신고 후 7년 동안만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혼인을 하면 청약,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말 그대로 혼인 폐널티 영향 때문인데요. 최근 국회에서도 이 부분 지적하면서 상황이 아주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갈 길이 면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경제장관회의 등에 출석 적극적으로 하시고 요청하셔서 청년층, 신혼부부들 관심 갖는 이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주희 위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저는 청문회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후보자님이 정말로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성평등정책 등에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셨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대한 소회 그리고 취임 후 포부 한번 꼭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마쳤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라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도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아까 소회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 10대 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쓴 일기들을 우연히 보면서 제가 꿈꿨던 세상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저를 다시 추스를 수 있었는데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얼마나 보호하느냐가 민주주의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제가 지명된 날 느꼈던 굉장히 무거운 그 막중한 책임감을 제가 여가부를 떠나는 날 까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가벼워지는 모습을 보이면 뒤에 계신 직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저를 질책하셔서 장관 끝날 때까지는 좀 무겁게 살아라, 좀 고통을 겪더라도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라라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이주희 위원님이 또 너무 빠른 질의를 해 주셨네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다음에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출범시킨 이래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여성가족부를 흔든 그런 예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말 여성가족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여성가족부장관이 1년 8개월이나 공석인 상태에서 새로 지명이 되셨는데 여성가족부를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도약시키는 그런 막중한 과제가 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하에서, 특히 계엄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저는 여성가족부를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선 보름 앞두고 5월 16일 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을 임명해요. 대선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건 뭐 낙하산을 넘어서 정말 알박기 인사의 전형인데.

그러면 그 관련한 이사장이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경력을 찾아보니까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옷깃을 스친 인연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대선 보름 앞두고 알박기로 임명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청소년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 군데를 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렇게 보면 이분은 3월 달에 임명, 3월 17일 날 임명이 됐는데 이분도 양육비 관련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특히 이분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고 불린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을 원래 당초에는 공모에 요구되던 양육비 관련 소송 전문성 요건이 이게 바뀌어 가지고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 이렇게 바뀌면서 채용을 했어요.

하여간 이런 사람들을 여가부 산하기관에 앉혀서 과연 또 여가부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런 알박기 인사들의 채용의 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텐데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저는 이번 계엄 과정과 대선 보름 앞두고 임명된 이런 사람들의 채용의 공정성, 절차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감사도 진행하고 체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여성정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제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확인하시는 못했고요. 취임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점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조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후보자님, 2023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부 경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차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시고 IOC 규정 등을 좀 살펴봤습니다. IOC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 시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종목과 가능 여부에 대한 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도 더 살펴보고 다음에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오랜 시간 땀 흘려 노력한 여성 선수들의 기회를 침해하고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금지하는 정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각국의 사례와 IOC 규정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저희도 이 관련된 내용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정책이 세워질 때……

○조은희 위원 왜 대한체육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니, 여성가족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그 부분은 더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자,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께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의미가 다르지 않다,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마치 남녀 성대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성평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거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완전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조은희 위원 완전 동의하지 않으시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외람되지만 지금 저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사전에 제가, 장관이 부재했던 관계로 설명이 안 됐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에 질의해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성평등 개념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위 위원님들께서……

○조은희 위원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님 입장을 명확하게 묻는 건데 구구절절하게 또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은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받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예.

○조은희 위원 후보자님, 그렇게 하시면 도망가시는 겁니다. 회피하시고 도망가시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에 차별금지법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셨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주장이 혐오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조은희 위원 대통령께서도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에게 혐오라는 낙인이 찍힌 것에 대해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후보자가 오히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고 또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갈등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닌지 묻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께 걱정 끼쳐 드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우리 국민이 저는……

시민은 그 수준만큼의 정부와 의회를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충분히 높아져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토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론의 장이 바로 우리 국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김한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한규 위원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이연희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하느라 고생하는데 저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좀 원만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여쭤보시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성과 양성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속 내용은 후보자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찬반으로 물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념적 공세는 아니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후보자가 얘기한 것이 성소수자,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동성애, 제삼의 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이지요?’라고 계속 규정적으로 몰아가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

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질문 공세들은 위원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이연희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오해를 빚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 동료 위원님의, 서영교 위원님이나 박홍배 위원님께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탁 질문을 해서 하셨는데 제가, 저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하느냐 하면 끝내려고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려잖아요. 그러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답변이 길어요. 길면서 결국은 시간을 끊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으로 지내셔서 법정에서 변론하시는 그 습관이 있으신지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예스, 노’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는 논란이 있으니까 합의를 구해 보겠다라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다가 결국 결론에서 물으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를 꼭 뭔가를, 답변을 억지로 구해서 마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발언, 질문을 한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실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든 야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선** 좀 그만하시고요.

이제 3차 질의는 마쳤고요, 제4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고 질문하는 걸 나름으로는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오고 가냐 하면 후보자께서 지명받자마자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인터뷰의 내용이 헤드라인에 ‘헌법상’, 그것까지 팬잖아요. ‘헌법상 평등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기에는 헌법에 양성이고 또 이게 가는 길이,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더 합의를 이끌면서 시간을 더 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방향이 조금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질의를 하면 그 답을 하시는 게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질문을,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중간에 정회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인선** 예, 그 부분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인권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 3분 정도 시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이인선** 3분은 안 되고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간리(GANHRI)라는 데, 사실은 우리가 A등급을 받을지 B등급을 받을지 세계인권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권위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나 몇 분이서 이런

등급에 못 미친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지금 10월 말에 그 등급이 나오게 돼요, 인권 등급 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후보자께서 그전에는 인권위원회에 있었지만 이제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불평을 그 위에 소수 의견으로 전달을 한 거라고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2025년 퀴어문화축제 첫 불참 이런 아주 사소한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나게 됐는데 제가 우연하게 언론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보자는 인권위원회일 때는 그렇게 소수의견 내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무위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상이랑 인권위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월 말에 이 등급이 나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본인이 서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짧게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권위원회에서 전 상임위원인 남규선 위원과 군인권센터에서 인권위원의 독립성 침해, 계엄 사태에서 인권위의 행동 방기에 대하여 답변서를 냈고 그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이게 논의되고 인권위원회들이 여기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는데 위원장님이 저희 의견을 담지 않는 초안을 만드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몇 분이 말씀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본인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시라’, 그런데 저희가 낸 의견은 다른 의견이 아니라 GANHRI에서, 균형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GANHRI가 등급을 유지할지 보류할지 알 수 없지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의미에서 보낸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그러니까 후보자님, 정보 제공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내부 불화처럼 보이고요. 내부 위원들끼리의 불합치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A등급을 받을지 B등급을 받을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국무위원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뜻이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대부분 11조 1항부터 해서 다들 우리 헌법상에 있는 양성이라는 것에, 이제는 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남녀 차별이 있으니까 성 평등으로 가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가 보자 하는 뜻인데 본인이 하신 워딩들이, 앞쪽에서 후보 지명을 받고 바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차 질의……

○김한규 위원 4차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 이인선 4차 질의 다섯 분, 여섯 분이나 있는데요.

○김한규 위원 다섯 분요?

○위원장 이인선 이연희 위원님 4차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연희 위원 4차 질의 한 다음에 또 5차 질의도 있어요?

○위원장 이인선 아니요, 다시 또 조사해야지요.

○이연희 위원 그것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선 간사 간 협의라기보다 조금 전에 행정실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3분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질의.

○김한규 위원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선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늦게 오신 것, 뒤로 빠진 것 때문에 지금 여기 기록 와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이연희 위원 할게요.

○조은희 위원 그런데 하는데 왜……

○이연희 위원 질의한다고요. 신청했어요.

○조은희 위원 왜 이연희 위원님이 맨 먼저 해요?

○위원장 이인선 맨 먼저가 아니고 뒤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라고요. 아까 뒤로 갔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 후보자님,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순위 1순위로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요. 뭐 여기 생활동반자법도 있고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간음법 등을 얘기했는데 1순위로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여가부가 마땅히 했어야 됐을 성평등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염연히 사무 관장에 여가부가 정부정책……

○한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셔서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논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역할을 하겠다, 논쟁적인 것이 아닌 부분을 먼저 살펴 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부분입니다.

○한지아 위원 답을 항상 회피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성평등 논쟁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체계에서 양성평등 정의만 있을 뿐 성평등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법을 제정해서 성평등이라는 그 정의를 다시 세우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지아 위원 이제 부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사회적 협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늘……

○한지아 위원 아, 그러면 국무위원이 되시면 양성평등의 정의와 성평등의 정의는 다르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재정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예시로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논쟁적인 거거든요. 이게 마치 모든, 생각하시는 게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는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요. 국민들께서…… 소수자의 생각까지도 보듬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본인 생각과 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보듬어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다른 분들의 생각……

○한지아 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전에 유엔의 정의, 외국의 정의 통용이 된다…… 미국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것 아시겠지만 유엔이나 WHO는 굉장히, 가장 진보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것의 준비가 돼 있느냐? 사회적 합의도 아니고 사회적인 대화도 아니고 지금 그냥 본인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새로 제정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께 강요하는 거거든요. 외국도 섹스 이퀄리티(sex equality)랑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 염연히 다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것을 국민들께서는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득하셔야 되고, 본인의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같다고 생각하고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아예 법적으로 정의를 다시 하겠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한지아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 이후에 계속 더 고민하면서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지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셔서는 안 되세요, 더 이상.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한지아 위원** 지금 사회운동가가 아니세요. 지금 국무위원으로 가는 후보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많은 위원들이 정의가 다르지 않다, 심지어 우리 법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좀 더, 1분 줘 보세요.

○**한지아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꾼다고 하시면 그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낼 수 있는 논리가 있으셔야 되세요.

그런데 외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WHO, 코로나19로 우리가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수용성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일관되게 똑같이 답하십니다. 심지어 지금은 성평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제정하겠다고까지 하세요. 이것 굉장히, 그렇게 안 가셔야……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그냥 나중에 사회적으로 더 논의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꾸겠다고 하십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오전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은, 결국 이런 논의는 국회에서 다시 충분한 논

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사실은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입장을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있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에는 서범수 위원님, 아까 못하신 질문 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장이라는 것은 본인의 소신 내지는 철학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또 다른 전체적인 부분하고 다르다, 그래서 내 의견은 어떻고 어떻고 그런 것은 여기 인사청문회에서는 통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개인 생각을 곧 청문회에서 본인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본인의 생각은 이렇지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인사청문회장의 무게감을 좀 느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성폭력 사건의 제1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2차 가해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한번 봅시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서 ‘2차 가해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2차 가해는 자네가 한 일이 아닌가’, ‘말해도 2차 가해, 침묵해도 2차 가해, 죽어도 2차 가해’, 그리고 ‘안타깝기는. 내가 평소 좋아하던 여성단체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덜컹 기자회견을 했다. 우려스럽다’.

여기에 혹시 후보자님도 이 여성단체에 같이하셨어요, 기자회견? 별로 기억이 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런 겁니다. ‘박원순 사태,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명확한 2차 가해로 보이거든요. 저분이 누구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잘 모릅니다.

○서범수 위원 존경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분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리고 대통령실에 전치영 공직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논란 아십니까, 벼닝썬 관련자? 벼닝썬 사태는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들어 봤……

○서범수 위원 약물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그것 관련자를 1심에서 3심까지 계속 변호한 유일한 변호사가 전치영 변호사인데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나 전치영 공직비서관 같은 분들을,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내지는 훨씬 좀 진보적인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서 되겠느냐. 오히려 어떤 신문에서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고 가해자주권정부 아니냐라고 비아냥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정부의 인사들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대통령님의 생각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대통령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를 장관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의 의중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어떻게 분명한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그동안 해 왔던 활동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서 기대되어진 역할들, 아마 여성가족위 위원님들 모두 다 그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인사들을 보면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잖아요, 인사하는 것 보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더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혹시 장관이 되시거든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 주시지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위원님.

○서명옥 위원 저도 사실 좀 일찍 끝내고 싶은데 후보자님의 답변에 대해서 계속 제자리 맴돌이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조은희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 확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고 있으니까 후보자님은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시고요.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종교단체라든지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고 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께서도 사회적 논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차후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게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여가부에 오신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여러 국민에 대해서는 성인지감수성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거나, 조금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그런 이야기를……

○서명옥 위원 후보자님, 여기는 여성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면요

국민들의, 생각이 다른 모든 국민과 그리고 종교단체, 모든 시민단체의 의견을 담아서 조정하고 합의를 모아 가지고 갈등을 풀어 가는 부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계속 지금까지 활동하신 여성단체에서의 그 철학을 가지고 본인이 계속 고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인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앉아 있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그리고 저희들보고는 성인지감수성에 미치지 못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해 못한다고 자꾸 발언을 하시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렇지는……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명옥 위원 아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홍배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명옥 위원 아니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속기록에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 성평등가족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못 하시면 그만큼 그런 부분들은 성인지감수성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살아오신 여러 가지 이력들이, 물론 후보자님과 저희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통합화를 하시는 역할을 하셔야지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자꾸 그런 당신의 의견을 우리들한테 자꾸 주입시키고 우리 국민들한테 자꾸 강요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회의가 길어지는데 다시 한번,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심지어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관부처는 법무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장이 더 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제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론의 장이 열릴 때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의견을 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위원님들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은 제 진의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주희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누구요?

○임미애 위원 이주희 위원이요.

○위원장 이인선 이주희 위원님이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주희 위원 예.

지금 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후보자께서 성인지감수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위원님들의……

○**서명옥 위원** 없다가 아니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주희 위원** 그런 워딩을 정확히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자꾸 후보자님의 발언을 조금씩 비틀어서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저희 인청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조금 과한 얘기를 하십니다.

○**서명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안 하셔야 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김한규 위원** 속기록 보고 만약에 없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장 이인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속기록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조은희 위원** 4차 질의 끝나고 정회하고 확인을……

○**위원장 이인선** 확인을 해 봅시다.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진행하고,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속기록 보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달희 위원** 저희들이 여성계에서 항상 고민이 정치 참여 논의하다가 그다음에 일자리 얘기하다가 이제 의식까지 다다랐는데요. 여성가족부 존폐를 논의할 때 만성적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타 부처와의 중복 사업입니다. 여성 문제,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 여가부가 없어도 다 해낼 만큼 중복이 돼서……

저는 이제 지역에서, 행정에서 몸담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역의 현장에 내려가 보는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부처별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하고 교육부는 늘봄학교하고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아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서 여성가족부가 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또 고립·온둔 지원 사업도 여가부와 복지부가 중복돼 있습니다. 또 다른 중복된 것 다 아십니까, 후보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온가족돌봄 사업도 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있고 스마트폰과의존 회복지원 사업도 과기정통부와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사업들이 다 있는데 사실 우리 예산 700조 이상 되는데 여가부가 2조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이 일, 저 일, 저 일, 저 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서 정말 사각지대 약자를, 여가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정리하시고, 줄 건 주고 또 다른 부서에 있지만 우리가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인청을 준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부처별로 사업명을 봤을 때는 일부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듯이 보이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온가족돌봄만 보더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왜 작년에 편성된 예산도 다 쓰지 못했느냐 하는, 돌봄 중에서도 아이돌봄과 관련된 영역이 여전히 저희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사업의 명칭은 같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은 굉장히 한 20여 일 동안 진행됐던 부분이어서 이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아까 청소년 아카데미도 있잖아요. 학생 수는 적은데 사업은 그대로 각 부서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다 합니다. 학생 유치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도 되고 여기에 와도 되고 등록만 해 놓고 여기에 30분만 와도 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민 수요자 측면에서 지금 있는 백화점식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찔끔찔끔 작은 예산 갖고 잉크 풀듯이 그냥 풀어서, 실효성 없는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여가부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고, 선택과 집중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감 때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부분 저는 수요 대상, 정책 대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오늘 밤늦게까지 하루종일 논란되고 있는 부분을 좀 단순명료하게 정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별금지법은 법사위 법안입니다, 여가위 법안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그런 토론 절차를 거치자라고 하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비동의강간죄도 결국 법사위 법입니다. 주무 부서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논의 절차를 거치자라고 하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간단히 될 일인데 자꾸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듣고 싶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달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서명옥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후보자가 누구입니까?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리하신 대로 계속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여가부가 정상화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당, 그러니까 여당 위원하고도 물론 당정회의도 하시겠지만 저는 지난 3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하고 협의할 것 있으면 그때그때 협의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관점이나 여러 가지 생각 차이, 정책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대화하고 토론해서 그런 부분을 좁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 위원님들하고 대화하고 협치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저는 오늘 오전부터 사실 위원장님 외의 다른 위원님들 처음 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우리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좋은 방향을 알려 주셨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야당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락되시는 한해서 찾아뵙고 정책에 대한 설명과 정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성적 지향,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미 수십 년부터 쭉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왔던 사안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잠깐 조금만 더 주실래요?

○위원장 이인선 1분만 더 드리시지요.

○이연희 위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그런 논의 부분이 매우 후진적이잖아요. 그것이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사회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야당과도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서로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본인 어떤 개인의 소신, 생각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논의를 1cm라도 진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이연희 위원님의 주신 말씀 저는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여가부장관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것도 지난 3년간 여가부 폐지로 인해서 여성들의 존재가 지워지는 부분,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제가 이 무거운 자리, 사실은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선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저는 역시 청문회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청문회 초반만 해도, 오전에만 해도…… 사실 강선우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은 후보자 지명되시자마자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여기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차별금지법 도입에 찬성한다’, ‘동성애 반대 주장이 혐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님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여가부장관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이것을 ‘국회에서 토론의 장이 열리면 여가부

장관의 입장을 마련하겠다', '국민이 그 정도로 생각하실 거다, 수준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안심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최근에 사면되셨어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인데, 그 당시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하는 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 텐데 당시 김은경 장관에게 부당하다는 직언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 고문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로펌에, 그러니까 법률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없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아니, 질의가 있으면 저희가 답을 하고, 질의가 없을 때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답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사후에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런 질문을 받아 본 바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은희 위원 그러면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조은희 위원 사법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 이미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다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이건 양해할 사안이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그 부분은 저희가 판결문과 그 당시 기사를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시지요.

인권침해 예방, 개선에 노력을 해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 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일단 4차 질의는 마쳤고요. 조금 전에 아까 그 속기록을 확인하기로 한 것 때문에 양당 간사께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마치든지 5차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방금 마지막 질문이라고 안 하셨어요?

○서범수 위원 속기록 안 가져왔나요?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분이 질문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찾기가 편하니까.

○위원장 이인선 아니, 속기록은 확인해야 되니까요.

○김한규 위원 조은희 간사님 질문할 때 그렇게 답을 했다고요?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10분 정회하고……

○김한규 위원 10분만 정회 하지요.

○위원장 이인선 10분만 정회하고 속기록 확인하시고요. 양당 간사께서……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조은희 위원 서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후보자에게 말씀드렸을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찾아서 다시 질의하고 또 하는 게 굉장히 지루한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직원들도 다 힘드실 것 같은데 추후 서면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사과를 받든지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양당 간에 결론을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그러면 더 좋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김한규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맞지요.

○위원장 이인선 어느 쪽이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범수 위원 30초만 주세요.

○위원장 이인선 30초만요? 서범수 위원님 30초 주세요.

○서범수 위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청문회 하기 전에 후보자님께 ‘가서 여당 위원님께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하니까 후보자께서 ‘야당 위원님께는 인사를 안 했는데 여당 위원님께 가서 인사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안 오셨다 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걸리는 게 뭐냐 하면 빨리 행정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럴 바에야 야당도 오고 여당도 오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왜 거기 안 갔다고 여기 안 오고 여기 안 왔다고 저기 안 가고 이럴 게 뭐냐,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후보자 입장이어서 제가 좀 조심스러웠던 점…… 그런데 위원님들 앞으로 자주 찾아봬도 저 거부하지 마시고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전략적이고 정무적이고 또 국정철학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이로써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민경 후보자에게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원민경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충고,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려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가부장관으로서 중책을 맡을 기회가 허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조언을 유념하여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민경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민경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관련해서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보좌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남희 김한규 박홍배 서명옥 서영교 서범수 이달희 이연희 이인선 이주희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정춘생 조은희 채현일 한지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출석 공직후보자

원민경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정책기획관 김권영
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대변인 최문선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
기획재정담당관 신경식
홍보담당관 김성벽
운영지원과장 김성철
감사인사담당관 이정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한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지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